



# 雲門

불기 2555년  
봉호  
통권 제116호

雲門僧伽大學



불기 2555년 봄호 통권 제116호

# 雲門

## 목 차

호거산 운문사	2
죽림헌	3
교수논단	4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6
이와 같이 들었다	10
나를 찾아가는 길	12
想	14
학인논단	15
차례법문	16
특별기고	17
운문칼럼	18
풍경소리 하나	19
방부소감 하나	20
선배탐방	21
이 한 권의 책	22
선사이야기	23
운문, 운문인	24
끝없는 여정	25
담소	26
방부소감 들	27
풍경소리 들	28
수행의 두레박 하나	29
수행의 두레박 들	30
운문논평	31
운문소식	32
동불	33
꽃웃음 뜰 앞에	34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35
『농업경』에 나타난 마음의 논증 분석Ⅰ	36
파우 숲 속 사원에서의 선정 수행	37
참다운 행복	38
마음	39
대중스님들 마음에도 봄이 왔나요?	40
21세기 佛教식 경영 ParadigmⅡ	41
이곳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42
불자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43
물리학과 불교	44
삼보에 귀의합니다	45
운문사 처진 소나무	46
열정과 폐기	47
백과사전들의 향연	48
킬링필드의 살아있는 부처	49
지심귀명례	50
우리가 가야할 길	51
善因을 심는 마음으로	52
치문, 그 설레임	53
발원문	54
노스님은 신장님	55
발보리심	56
避難處, 彼岸處	57
천진불	58

꽃웃음 뜰 앞에  
비부각득흘날리고  
난간밖에 소나무  
바람이 우네  
그대여 무엇찾아  
해매이는 가  
이것비로그대  
찾는 그것인 것을

벽송당야 노송



##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세상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하듯 수행자들도 경작을 합니다.  
바로 마음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애써 수행하는 비를 내려 적십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브라만 마을인 에까날라에서 가까운 마가다 사람들이 사는 곳인 닥카니기리에 계셨습니다. 그때 까시 바라드와자라는 브라만은 파종할 때가 되어 오백 개의 쟁기를 명에에 폐었습니다. 마침 부처님은 탁발하기 위해 이 바라문이 음식을 나누고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브라만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그대도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드십시오.”

브라만이여, 나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타마 존자님의 명에나, 쟁기, 밭 가는 연장, 소몰이 막대, 황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존자님께서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는다고 하십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게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씨앗이며,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나의 명에와 쟁기이며,  
마음은 명에의 끈이며, 부끄러움은 막대기이며,  
마음 쟁김은 보습과 소몰이 막대일세.  
몸을 단속하고, 말을 조심하고, 음식을 알맞게 먹습니다.  
진실은 나의 제초기이며, 온화함은 명에를 벗음일세.  
정진은 나의 짐을 진 소이며,  
속박으로부터 안온함으로 이끈다네.  
쉼 없는 정진으로 슬픔 없는 곳에 이르네.  
이렇게 밭갈이가 끝나면 불사(不死)의 열매를 거두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네. (쌍육타 니까야: 7)

세상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하듯 수행자들도 경작을 합니다. 바로 마음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애써 수행하는 비를 내려 적십니다. 지혜의 명에와 쟁기로써 밭을 갈고, 진실로써 번뇌의 풀을 뽑으며 정진의 소로써 밭을 갑니다. 그리하여 불사의 열매를 거두어 모든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

# 『능엄경』에 나타난 마음의 논증 분석<sup>1)</sup> I

명 법 / 운문승가대학 강사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능엄경』의 특징
- III. 마음의 논증
- 1) 『능엄경』의 서술 방식
- 2) 七處微心章의 분석
  - 1. 첫 번째 주장
  - 2. 두 번째 주장
  - 3. 세 번째 주장
  - 4. 네 번째 주장
  - 5. 다섯 번째 주장
  - 6. 여섯 번째 주장
  - 7. 일곱 번째 주장
- IV. 마음에 대한 서양철학의 몇 가지 이론
- V. 맺음말

## I. 들어가는 말

불교는 초월적 실재나 객관성을 상정하거나 궁극적 기원이나 운명을 논의하는 대신 인간의 경험과 인식을 토대로 마음과 마음의 원리를 밝히는 것을 논의 중심으로 삼는다. 이 태도는 독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칸트의 비판철학 및 현상학적 방법론과 유사하다. 한편 영미철학에서 마음이란 영역은 합법칙적이고 계량 가능한 자연체계에 밀려 오랫동안 잊혀져 왔으나 최근 사이버네틱스와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라 인지과학, 즉 인간의 지능과 구조에 대한 탐구가 과학적 탐구 대상이 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마음'이 중요한 철학 문제로 재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철학의 총애가 마음에 집중되는 것과 더불어 오래전에 논의되었던 불교의 마음이론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sup>2)</sup> 일례로 『능엄경楞嚴經』에 나타난 마음에 대한 분석은 현대 심리철학이 다루는 문제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그러나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문제의식은 다르다. 불교는 현상의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근원적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논증의 목적인데 반해, 현대 심리철학은 현상의식과 물질의 관계 또는 마음의 존재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양자의 형이상학적 입장의 차이<sup>3)</sup>에서 비롯된다. 이 글에서는 『능엄경』에 나타난 마음의 논증을 분석하여 그 주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또한 현대 심리철학과 어떻게 다른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 II. 『능엄경』의 특징

『능엄경』은 당唐 중종中宗 신룡新龍 원년(705년) 번역되어<sup>4)</sup> 송·명대 널리 읽혔으며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에 유포되어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계층까지 널리 읽혔다. 이 경은 송·명 성리학 발전과 관계있으며 양명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능엄경』은 모든 사람이 상주진심常住眞心을 가지고 있지만 허망한 마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을 주장하므로 여래장계통의 경전으로 분류된다.

이 경전의 원래 이름은 5가지이지만 그 중 3가지만 따와 『대불정여래밀인수중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印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불교경전은 이름에 경전의 내용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도 마찬가지다. 먼저 '대불정大佛頂' 이란 '부처님의 정수리' 란 뜻으로 볼 수 없는 진리, 가장 높고 위대한 진리를 비유한다. 이것이 여래의 비밀한 원인(密因)이며 부처님이 중득하신 대승진리 중 최고의 진리인 요의법了義法이며 모든 보살이 만행萬行을 완성하는 것이다. 수능엄은 '완성' 이란 뜻이며 '일체사필경견고一切事畢竟堅固, 건상분별健相分別, 보살장엄대보菩薩莊嚴大寶' 라고 한다. 『정맥소正脈疏』 서문에는 "본래 깨달음이 번뇌에 얹혀 있을 때를 여래장심이라 하고 맑고 고요한 성품의 당체를 수능엄정首楞嚴定이라고 한다"<sup>5)</sup>고 하여 수능엄정과 여래장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열반경』에서도 능엄정楞嚴定을 깨달음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능엄정은 『능엄경』을 이해하는 관건이다.

우선 「정맥소현시正脈疏懸示」의 설명을 살펴보기로 하자. 수능엄은 대정大定의 충명이며,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총괄한 것이다. 「정맥소」에 따르면 이 정는은 천태지관天台止觀과 다르다. 지관止觀은 먼저 마음과 대상경계를 세워 상대가 되므로 각각 체가 다르다. 처음에 둘이던 것이 점차 익어 고요해지면 마음과 경계가 하나가 된다. 이것은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 작용한 결과 얻어지는 안정이며 따라서 인위적인 수행이지 자성自性에 바로 닿아있는 것이 아니다. 지관止觀은 대상과 마음을 분별한 후 마음에서 대상경계를 지워 없애는 작용을 통해 얻는 것이지 마음 자체를 취한 것이 아니다. 반면 『열반경』에서 수능엄을 법의 근원이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일체사필경견고—體事畢竟堅固'라고 한 것은 수능엄首楞嚴은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원정圓定이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켜 경계와 대립하는 지관止觀과 달리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그대로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에서 말하는 사마타는 자성에 본래 갖춘 부동不動, 불멸不滅, 불실不失, 불환不幻이며 사과四科<sup>6)</sup>가 상주하며 칠대七大<sup>7)</sup>가 보편적이며 십혹十惑<sup>8)</sup>과 삼속三續<sup>9)</sup>의 망토은 본래 거짓이며 사의四義<sup>10)</sup>와 삼장三藏<sup>11)</sup>의 진眞은 본래 스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 뜻은 '일체사필경견고'와 '철저한 법

1) 이 논문은 2000년 필자의 박사과정 중 기말과제로 작성되었으며 2006년 『불교학연구』 제13호에 발표되었던 글로서 비교적 긴 시간이 흘렀지만 불교학연구회의 동의를 얻어 여기에 다시 실는다. 학인스님들의 경전 연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불교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없었던 『楞嚴經』 원문을 첨가하였다.

2) 최근 불교학 연구에도 서양 심리철학의 한점을 수용한 경우가 보인다. 이와 같은 비교철학적 연구는 권장될 만하지만 양자의 철학적 기초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단순하게 비교할 경우 불교 이해 자체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봉계와 김재원의 수반이론으로 연기론을 이해하려한 전재성의 경우도 이런 우려가 있다. 전재성, 「初期佛教의 緣起性研究」,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5년 참고.

3) 형이상학을 거부하는 것조차 하나의 형이상학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논리실증주의와 경험주의도 하나의 형이상학적 입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 『능엄경』은 전래와 번역과정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 위경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경전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이 경전에 표방된 사상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헌학적 진위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번역 연대를 인용하였다.

5) 『正脈疏』(大正藏, 274) 「本元覺海在纏名如來藏心湛寂性天當體號首楞嚴定」

6) 五陰, 六入, 十二處, 十八界

의 근원이 부동불괴不動不壞와 부합한다'는 의미와 같다. 마음에 본래 갖춘 원정圓定을 그대로 취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개해開解하게 되면 분명하게 조체照體가 현전하게 된다. 이것을 미밀관조微密觀照라고 하는데 천태지관의 사유 수습思惟修習을 취하는 관觀과 다르다.

『정맥소현시』는 능엄정을 다시 묘정妙定, 원정圓定, 대정大定으로 나눈다. '묘정'은 수능엄정이 성性에 본래 갖추어진 천연 부동한 것이며 수행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미혹과 변화 속에서도 그 체는 본연本然하기 때문에 묘妙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철저한 법의 근원이 부동불괴不動不壞한 정定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성性에 즉하지 않고 따로 공부하여 지관止觀하는 것은 묘정이 아니다. '원정'은 수능엄정이 마음의 부동不動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만법만사를 통솔하여 모두 본래 부동한 것을 정定의 체로 삼는 것을 말한다. '대정'은 미혹한 지위에서도 본래 동요한 적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 개해한 후에도 물려남이 없는데, 이 정은 개해하고 보살만행을 한 후에 곧장 모든 성인의 지위를 통과하여 부처를 이루어 마침내 물려남이 없으므로 사라짐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구경견고한 정定이라 할 수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수능엄정은 여래장이며, 수행을 통하지 않고 '본래성불'이라는 정인불성正因佛性을 취하므로 임제종의 돈오돈수 사상과 상통한다. 『능엄경』 제1권은 '작용즉성설作用即性說'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 경은 연기 또는 무아를 설명할 때 초기불교처럼 법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아니라 마음이 체가 없다는 것을 직접 논증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며, 다른 경전의 비유나 변증논리와 달리 형식논리로 마음의 실상을 밝히므로 현대 철학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정맥소』는 『능엄경』의 구성을 견도분, 수도분, 중과분으로 나누어 수능엄정의 세 영역인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대응시켰다. 견도분은 부처님과 아난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마음의 개념을 논파하고 참마음인 여래장묘진여성을 협시하는데, 다음 장에서 그 중 칠처징심장七處徵心章에서 다루고 있는 마음의 논증을 분석해 보겠다.

### III. 마음의 논증

#### 1) 『능엄경』의 서술 방식

『능엄경』은 아난이 부처님에게 모든 여래가 보리를 얻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최초방편을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부처님은 아난이 마등가의 신주에 빠진 것이 정定을 닦지 않고 다문만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후회하는 것을 보고 무엇 때문에 출가했느냐고 묻는다. 이에 아난은 부처님의 삼십이상을 보고 마음과 눈으로 좋아하여 발심 출가했다고 대답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방법을 묻는 아난에게 출가할 때의 마음을 물은 것이다. 아난은 처음 발심할 때 묘정이 식심識心으

로 닦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식심 밖에 따로 진심이 있으며 이것이 본래 구족한 사마타체임을 알지 못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오해인데, 부처님은 바로 이것이 생사해탈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은 우리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기가 아니다. 『능엄경』은 이 '식심'이 사마타로 막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마음이 아님을 깨닫게 한 후 참마음을 가르쳐서 묘사마타의 문제에 도달하게 하는 전략을 취한다.

칠처징심장七處徵心章에서 먼저 형상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고 짐작하는 아난에게 부처님은 식심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고 참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난은 형상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맥소』에 따르면 아난의 생각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본래 마음이 아닌 것을 마음이라고 여긴 잘못과, 둘째 식심은 체가 없는데 체가 있다고 생각한 것, 셋째 식심은 있는 곳이 없는데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한 점이다. 요컨대 식심은 마음이 아니며 체가 없으며 장소가 없다. 그런데 이 논증은 비심非心과 무체無體를 증명하지 않고 식심이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만 증명한다. 그것은 '마음이 몸속에 있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오해이므로 우선 이것을 논파해야 다음 두 가지 논제, (참) 마음이 아니라는 것과 마음이 체가 없다는 것을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칠처징심은 우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그 대답이 잘못되었음을 낱낱이 논파하여 마음이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밝혀낸다. 아난이 주장하면 부처님이 그것을 논파하는 대화형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데, 이것은 용수의 귀류논증법으로, 자기주장은 세우지 않고 상대주장의

오류를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 논리전개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아난의 7가지 대답을 부처님이 어떻게 논파하고 있는지 경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七處徵心章의 분석-부처님이 아난에게 마음이 있는 곳을 묻다.

아난이 부처님의 삼십이상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발심했다는 대답에 부처님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좋아했느냐?'고 묻는다. '마음과 눈을 사용했다.'라는 아난의 대답에 대해 부처님은 좋아함이 마음과 눈 때문이라면 마음과 눈이 있는 곳을 알아야 번뇌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맥소』는 "마음을 논파한 다음 눈을 논파해야 한다."는 『계환해』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마음과 눈이 함께 거론되지만 사실상 문제 삼는 것은 마음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마음만 문제 삼지 않고 눈과 마음을 동시에 거론했는가?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아난이 보는 것은 눈이고 좋아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오해처럼 식을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눈은 보는 작용을 담당하므로 눈과 마음이 동시에 문제된다. 그러나 부처님이 지적했듯이 죽은 사람의 눈이 볼 수 없으므로 보는 작용을 하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다.

둘째 눈 때문에 마음이 색으로 이끌려 함께 유전하기 때문이다. 셋째 눈은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논의 전개가 다른 감각기관보다 쉽기 때문이다. 마음이 몸속에 있다는 주장을 논파할 때 눈이 얼굴에 있는 것을 통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논파할 수 있다. ♡

7) 地, 水, 火, 風, 空, 見, 識

8) 無明, 三細, 六粗

9) 세계상속, 중생상속, 업과상속

10) 하나가 무량이 되고 무량이 하나가 되며 작은 것 가운데에 큰 것이 나타나고, 큰 것 가운데에 작은 것이 나타나는 것

11) 空如來藏, 不空如來藏, 空不空如來藏



## 파옥 숲 속 사원에서의 선정 수행

진 광 / 운문승가대학 학감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을 돌고 돌아 여기에 왔는가? 길고 긴 유회의 수레마차 속에서 인간의 몸을 빌었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행운이가 되었습니다. 운문사에서 어느덧 30여 년이 훨씬 넘는 성장을 지냈지요.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한 시절을 보낸 셈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꿈속에서도 늘 출가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푸른 산의 흰 구름과 솔바람 소리로 벗을 삼고, 학인 스님들의 낭랑한 독경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1년간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박사 논문을 쓴다는 평계로 이해저래 힘이 들었던 게지요. 처음 발심했던 때의 그 견고했던 신심과 간절함이 그리웠습니다. 終日數他實하되 自無半錢分이라' 하루 종일 다른 이의 보배만 헤아리고 있었지 내 것은 반전분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발심 출가의 동기였습니다.

휴식년 동안 나는 미얀마 파옥의 아름다운 숲 속 사원에서 수행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맨발에 가사를 수하고, 가슴에는 'NOBLE SILENCE' 명찰을 달고 침묵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출리(出離). 모든 문명의 이기들, 예컨대 컴퓨터, 전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이메일, 휴대폰……. 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으로지 수행하는 일, 그 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꾸띠(작은 오두막)에 홀로 지내며 침묵이 주는 충만함과 고요함

속에서 가장 단순하고 조촐한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나로부터 시작하여 일체 유정무정의 존재들에 대해 자애의念을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는 '내가 지금 비록 살아 있지만 지금 당장, 또는 내일이나 모레 그 어느 순간에라도 죽을 수 있다. 삶은 확실하지 않지만 죽음은 확실하다.'라고 죽음에 대해 명상하며 하루를 접었습니다.

그 곳 생활은 새벽 3시 30분 기상 목탁이 울리면서 시작됩니다. 공양은 대중도 많고 마을도 멀기 때문에 절 안의 탁발하는 장소에서 아침과 점심 2번 탁발을 합니다. 음식은 철저한 채식이고 일체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5번,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씩 명상 홀에 가서 명상을 합니다. 그 외에는 혼자 명상을 하든지 휴식을 취하든지 자유롭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마침 집중 수행기간이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수행자들이 1,200명 정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지극히 자율적이고 말과 행동 마음씀이 자애로웠습니다. 계율을 생명처럼 소중히 지키고, 선정과 지혜수행을 닦으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머물렀습니다. 마치 부처님 당시 영산회상에서 1,250명의 상수제자들이 부처님과 함께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시를 본 것도 그곳이었습니다. 사탕 한 알, 작은 옷편 한 개, 좀약 한 봉지, 사과 한 쪽, 생수 한 병, 들꽃 한 송이……. 그런 작은 것들을 지극한 신심과 순수한 미소와 함께 받았습니다.

숲 속 사원에서 전 아나빠나 사띠(Anapana sati,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선정수행을 했습니다. '아나'는 들숨이고, '빠나'는 날숨, '사띠'는 알아차림입니다. 선정수행의 명상주제는 40가지가 있지만, 보통 아나빠나 사띠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 아나빠나 사띠의 수행법을 통하여 삼매를 쉽게 계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수행에는 사마타(Samatha; 止)수행과 위빠사나(Vipassanā; 觀)수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마타는 삼매의 계발(선정수행)이고, 위빠사나는 지혜의 계발(통찰지 수행)입니다. 사마타 수행은 위빠사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사마타 수행으로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이 한 후, 통찰지혜로 궁극적 물질과 정신 그리고 그것의 원인과 조건에 대하여 無常, 苦, 無我로 깨뚫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빠나 사띠 수행은 눈을 감고해야 합니다.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깊은 집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눈을 감기가 어려웠는데, 보고자 하는 욕망이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혼침은 없었지만 들뜸과 의심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단 한 순간도 숨에 깨어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숨과 친해졌습니다. 때때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선정의 기쁨과 행복, 평온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삼일에 한 번씩 수행 중에 생긴 문제점이나 의심, 진보 등을 스승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았습니다. 스승은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해주고 그다음 수행과제를 줍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하여 수행자는 점차로 부처님의 법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스승의 격려와 질책을 통하여 다시 용기를 내고 결정심을 발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수행이 진보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행이 진보함에 따라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 지혜는 존재에 대한 자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 ☺

## 참다운 행복

편집부

어느 날 행복한 분(여래, 부처)께서 쉬라바스티(사워성)의 아나타핀다카의 뜰(기수급 고독원)에 있는 제타바나(제따숲)에 머무르고 계셨다.

밤이 깊었을 때 어떤 빛나는 천인(天人)이 숲 전체를 비추면서 행복한 분(如來)께 다가가 인사하고 곁에 선 후 이렇게 물었다.

“많은 신과 인간들이 좋은 것을 갈망하면서 행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불들고 갈망하고 있는데 당신은 참다운 행복이 무엇이라 말하겠소?”

여래께서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들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가까이하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

이것이 참다운 행복이오.

쾌적한 땅에 살면서 유덕한 행위에 앞장서고 올바른 욕망을 지니는 일,

이것이 참다운 행복이오.

큰 지혜와 많은 지식, 마음의 수양과 바른말,

이것이 참다운 행복이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평화로운 부름에 따르는 일,

이것이 참다운 행복이오.

자선을 베풀고 경건한 삶을 영위하며 친지를 보호하고 결함 없이 행동하는 일,

이것이 참다운 행복이오.

악행을 끊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바르게 처신하는 일,

이것이 참다운 행복이오.

공손함과 겸양, 민족과 감사, 때맞춰 바른 법(진리)을 듣는 일,

이것이 참다운 행복이오.

인내심과 부드러운 말, 성자들과의 친교, 필요한 때 종교적 담론을 갖는 일,

이것이 참다운 행복이오.

침회와 순결, 네 가지 거룩한 진리(사성제 : 고집멸도)의 통찰과 평화의 인식,

이것이 참다운 행복이오.

이승의 영고성쇠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슬픔을 떠난 침착과 안정,

이것이 참다운 행복이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지지 않으며, 어딜 가더라도 안전하오.

참다운 행복은 실로 그것이오.”

‘법구경’ – 티벳 해탈의 서(유기천 옮김)에서 –

## 마음

경허선사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음 움직이지 않기를 산과 같이 해야 하고,

마음을 넓게 쓰기를 허공과 같이 해야 하며,

지혜로 불법을 생각하기를

해와 달같이 해야 하며,

남이 나를 옳다고 하든지 그르다고 하든지 간에

곧은 마음을 끊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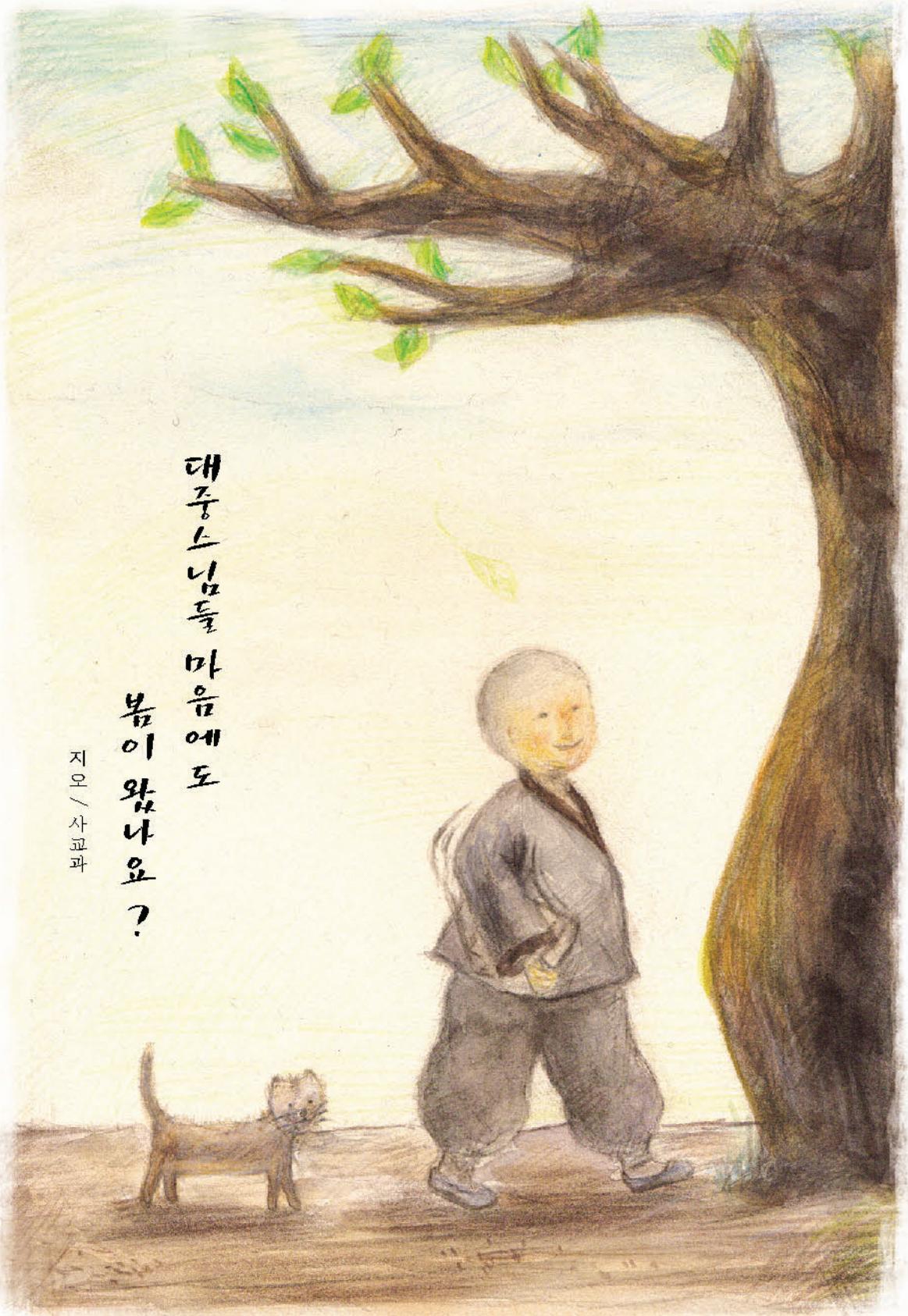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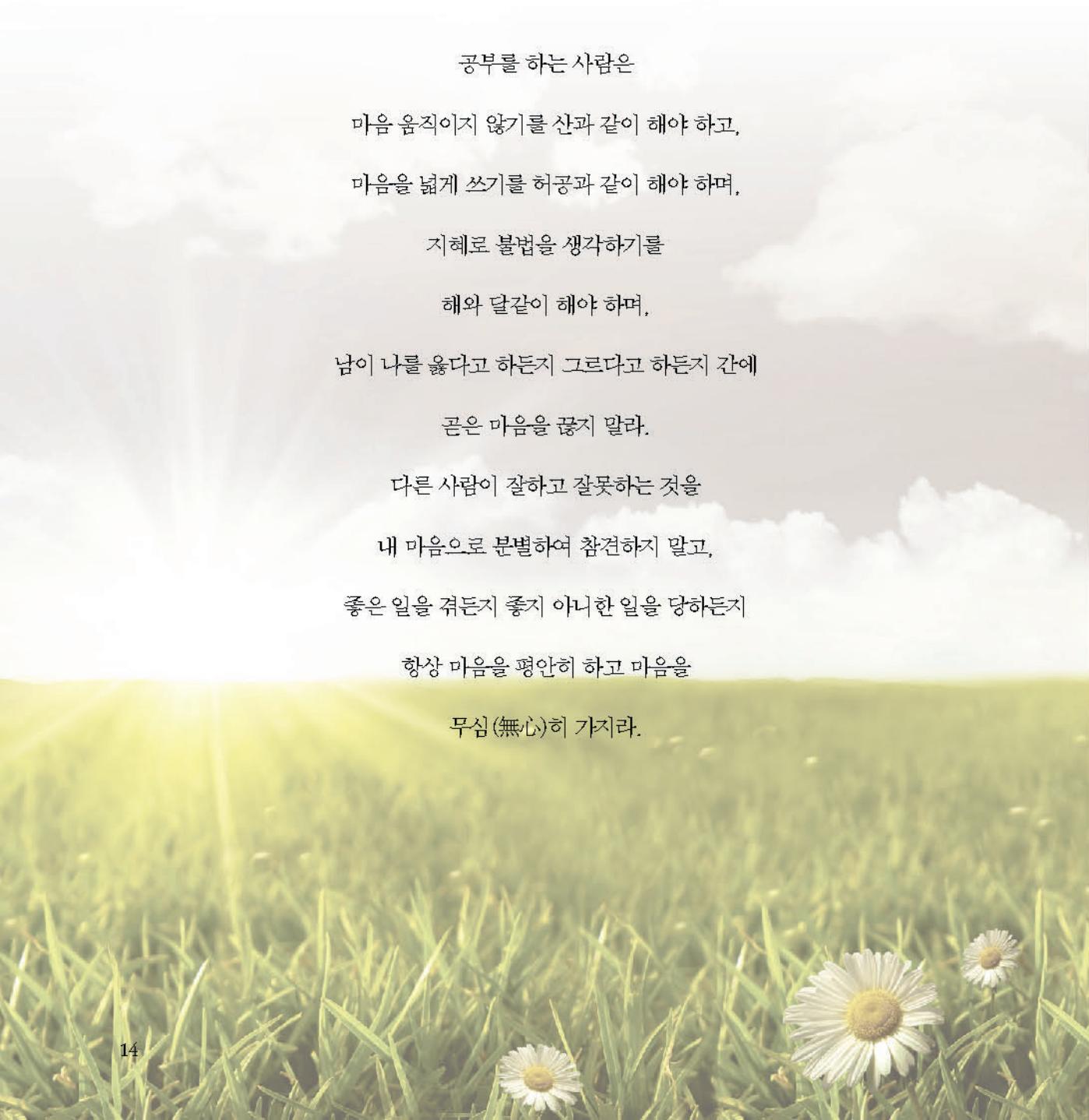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분별하여 참견하지 말고,

좋은 일을 겪든지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든지

항상 마음을 평안히 하고 마음을

무심(無心)히 가지라.



## 21세기 佛教식 경영 Paradigm Ⅱ

-현대(現代), Canon, (주)연우와 함께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현서 / 대교과

### 목 차

#### I. 서론

- 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장. 연구 방향과 범위

#### II. 본론

- 3장. 불교와 경영의 만남
  - 1. 경영의 일반적 정의와 불교식 경영의 차이점
  - 2. 불교식 경영이 주목받게 된 경영의 시대적 변천 과정
  - 3. 불교식 경영의 이해
  - 4. 봇다가 제시한 경영 사상
- 4장. 불교식 경영의 실현
  - 1.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
  - 2. 기업들의 경영 전략 비법
  - 3. 공통된 경영 전략 및 분석

#### III. 결론

- 5장. 자료 요약 및 해석

#### II. 본론

##### 4장. 불교식 경영의 실현

###### 1. 불교식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

어느 기업보다도 먼저 미래를 내다보고 인간적 경영, 불교식 경영을 실천한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남보다 먼저 앞선 경영전략으로 대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안정된 미래의 경영 system 을 구축할 수 있었다. 불교식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현대' 와 'Canon' 그리고 조계종 신도로서 불교 흠크ornings을 처음 만들어 낸 '(주)연우와 함께'라는 회사를 통해 불교식 경영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본 장에서 알아본다.

###### ① 현대 (Hyundai)

현대 토건사는 1947년 故 정주영 회장이 처음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현대그룹의 모태이다. 1950년 현대토건을 현대건설로 이름을 바꾸고 6.25 이 후로 복구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룹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한강대교 복구공사와 수많은 미군공사를 따내고, 기계화 시공, 첨단기법 도입 등 기술향상을 이루고 인력 관리에서 많은 노하우를 채득했으며, 1965년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1972년 조선소를 건립하고 런던 바클레스 은행으로부터 수출보증국 승인을 획득, 조선소를 설립하고 동시에 유조선 수주를 따냈다.

1986년 현대 경제 연구원을 세우고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며, 미래 고도화된 복지사회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그룹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전략 연구를 수행하여 선진 경영기법, 불교식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데 주력했으며, 1998년 그 유명한 소떼 1,001마리를 북한에 보시하는 전략으로 판문점을 통과하며, 남북경제협력시대를 개막하게 된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남북영농 사업, 평양체육관 건립 등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으며, 1999년에는 현대 아산을 설립한다.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산가족상봉과 개성공단설립, 개성관광 등 민족 경제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2001년 정주영 회장, 2년 뒤 2003년 정몽헌 회장이 타계하고 2004년 현정은 회장이 뒤를 이었다.

###### ② Cano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메라회사인 캐논은 설립자 Fujio Mitarai 회장의 큰 아버지인 미타라이 다케시가 불교 신자였던 영향이 그대로 녹아있는 단여이다. 캐논(CANON)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



다는 관음(觀音)의 일본식 표기로 처음에는 칸논(KWANON)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기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캐논의 기업이념은 공생(교세이, 共生)<sup>1)</sup>이다.

현재 CANON의 선명한 빨간색 로고는 전 세계인에게 잘 알려져 있다. 1933년 정기광학연구소(精機光學研究所)를 설립할 당시, 초대 카메라 시제품의 이름은 'KWANON(칸논)' 이었다. 이 이름은 관음보살의 자비로 세계 제일의 카메라를 만드는 꿈을 이루려는 바람이 담긴 것이다. 이 로고에는 천수관음이 그려져 있으며 불꽃을 이미지화한 'KWANON' 문자를 디자인했다. 그 뒤,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세계적으로 통용될 브랜드 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1935년 '캐논(CANON)'이라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게 된다. CANON에는 '성전, 규범, 표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는 정확성을 기본으로 하는 정밀공업의 상표에 걸맞는 세계의 표준, 업계의 규범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1) 1934년 "Kwanon" 카메라를 시험제작 할 때 새긴 관음상을 모티브로 한 조각.

2) 연우와 함께 심불(symbol)은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붕모양은 불교식으로 해석하자면 존재(사람, 사물이 머무는 공간)의 지붕을 표현했다. 그 아래 구부러진 모양은 '弓' 자를 변형하였는데, 생명의 순환, 태양의 생명력을 가리킨다. 또한 마치 꽃대가 올라온 듯 펼쳐진 모습으로 생명의 기운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명의 이야기, 존재의 이야기를 구현한 것이다.

### ③(주)연우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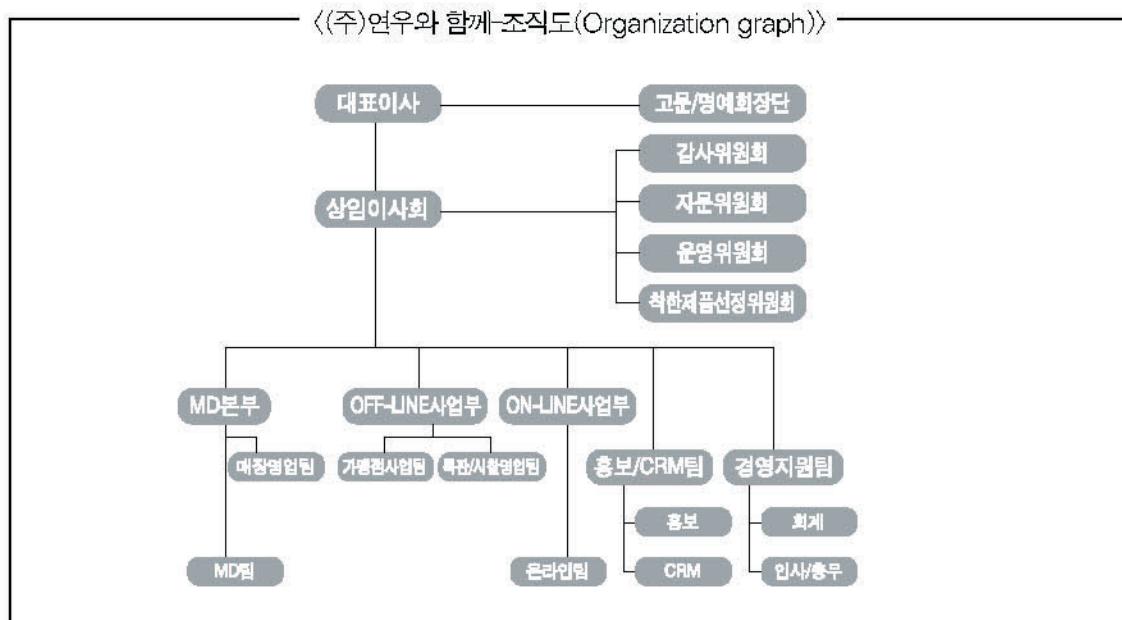


2)

'(주)연우와 함께'는 2009년 10월 이재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같은 해 12월 2일 '서울 AW 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 기업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발의한 이 회사는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고 '착한 소비, 착한 나눔'을 슬로건으로 창업되었다.

자비의 종교, 지혜의 종교, 마음을 움직이는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연우와 함께-조직도(Organization graph)>



2) 연꽃 연(蓮), 벗 우(友)의 뜻을 가진 연우는 영어식 표기로 Lotus Friend라고도 한다. 연은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이며, 우는 도반을 가리킨다. 불자들이 만들어 가는 착한 소비시대가 연꽃처럼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가는 불교계 기업이 되고자 이름을 만들었다.

### 종교인 대승불교의 불이사상과 연기사상을 바탕으

로 나눔을 실천하는 불교계의 사회적 기업이다.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밝고 건강한 바른 소비문화를 구현하고자 '착한 소비' 운동을 지속적 전향적으로 전개하여, 그 이익을 사회로 흘리는 선도적 사회적 기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부대중의 결림 없는 동참을 전제로 소액 다수의 주주와 회원, 그리고 후원회원의 참여를 기본으로 각 이해주체의 주도적 참여를 제도화하고 열린 의사결정 과정을 실천하고 있다. (주)연우와 함께는 착한제품선정위원회, 영업팀, 의류사업팀

### 2. 불교식 경영 기업들의 경영 전략 비법

	현대(Hyundai)	CANON	(주)연우와 함께
경영이념	꿈과 희망을 향한 도전과 창조적 예지로 풍요로운 내일을 창조한다.	공생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	착한 소비, 착한 나눔
경영비전	긍정의 힘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	환경경영 - 경제활동과 환경활동을 일체화(환경비전)	불교계의 사회적 기업
불교식 경영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복경영 : 고객·주주·임원의 행복을 실현</li> <li>2. 사회 친화경영 : 신뢰받는 기업시민</li> <li>3. 신조직 문화 4T의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복경영 : 고객·주주·임원의 행복을 실현</li> <li>2. 사회 친화경영 : 신뢰받는 기업시민</li> <li>3. 신조직 문화 4T의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착한 소비경영 : 이익을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li> <li>2. 사부대중 참여경영 :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경영을 제도화하고 열린 의사결정 실현</li> <li>3.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정책 :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확립</li> </ul>
불교식 경영실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HLDP(Hyundai Leader Development Program) :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li> <li>2. 금강산, 개성관광사업 : 남북교류를 통한 인류애적 Business</li> <li>3. 그린(Green)경영 :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 육성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를 위한 친환경 경영전략)</li> <li>4. 사회공헌활동 :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캐논환경비전 : Action for Green(3개의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5개의 페이스로 나누어 "행동계획"을 책정</li> <li>2. 친환경 제품생산 :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캐논 프리시즌의 프리 쿠링시스템, 포장의 콤팩트화 등</li> <li>3. 사회지원 : 쓰즈리 프로젝트, 캐논 엔바이로존, 적십자 파트너 쉽, 중국 야생동물 보호캠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함께 경영: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생활하는 것 모두가 하나 되는 것에 가치추구</li> <li>2. 착한 생산, 착한 소비, 착한 나눔 : 친환경, 친자연제품판매,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이익을 사회에 공헌하는 소비문화운동전개</li> <li>3. 착한 참여 : 착한 생산자, 전문 후원, 제휴 협력업체, 착한 소비자, 주주, 후원 회원</li> </ul>

## 이곳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선지 / 사교과

안녕하십니까? 사교반 선지입니다.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입니까?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나일까? 왜 여기 있는 것이지?’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날마다 생사(生死)를 마주했습니다. ‘죽은 후에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의 몸은 한 줌 재로 화하고 우리가 가진 영혼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철학, 심리학, 심리요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매우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생에 대한 책을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후에 부처님의 세계로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초발심’은 마치 에너지를 주는 충전기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고, 죽은 자를 위해 ‘옴 마니 반메 흄’이나 ‘아미타경’을 염불했습니다. 염불을 할 때마다 매우 편안하여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죽어가는 불자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요. 이제 스스로 도와야 할 때가 왔어요. 오직 마음 속에 아미타불을 염불하면서 청정하고 밝은 빛만 따르시면 좋은 곳으로 가실 겁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약속할게요. 오늘 밤 집에 돌아가 당신을 위해 염불할게요.” 다음 날 아침 그 환자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2001년 홍콩에 있는 선(禪) 법회에서 처음 승산 쁘스님을 만났습니다. 작지만 강단이 있고 회색 장삼과 갈색 가사를 가슴에 두르고 법당에 들어오신 분은 승산 쁘스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서 특별하고 강한, 움직임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너무 청정하고 밝아서 제 마음이 다 평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잊을 수 없는 쁘스님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날 쁘스님의 책을 사 와서 읽어나갔습니다. 책 중 하나가 매우 홍미로웠는데, 그것은 승산 쁘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서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제 인생의 의미가 됐습니다.

2004년부터 2년 동안 홍콩에서 행자 생활을 했고, 온사스님이 한국불교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서 한국에서 다시 2년간 행자 생활을 마치고 사미니계를 받았습니다. 제 온사스님은 홍콩 분이시고 지금

홍콩에서 사십니다. 일단 인연으로 승산 쁘스님을 20년 전에 만나신 제 온사스님은 그에게서 법을 전해 받으셨으며, 홍콩에서 한국 선원을 일구어내셨습니다.

솔직히 4년 동안 행자를 시키고 혼자 한국에 보내 온갖 어려움을 겪게 한 온사스님께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독립심을 배웠습니다.

4년 동안 행자를 했을 때 언제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할 때 온사스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봄이 오면 풀은 절로 자란다.” 어느 강원에 갈지 여쭈었을 때도, “모든 강원을 가보고 네 마음이 맞는 곳으로 가면 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치문반부터 그만두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한 때 온사스님께 그만둔다고 전화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사스님께서는, “왜 네가 운문사를 택했는지 기억해라. 그곳이 왜 끌리었는지?”라고 물었습니다.

온사스님은 운문사의 생활에 대해 거의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번은 홍콩에 갔을 때, 온사스님께서 선문답실에서, “질문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전 울면서 한 스님과 어떻게 잘 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지만 언제나 화난 얼굴로 저를 무시합니다. 그 스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온사스님께서는, “왜 그리 쉽게 우느냐? 무시해 버려라.” 그러면서 또한 수행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업을 무시해 버리겠습니까? 저는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스님이 생각날 때마다 자비경 염불을 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것이 승산 쁘스님의 가르침입니다. 따지지 말라. 오직 할 뿐!!

온사스님으로부터 승산 쁘스님의 많은 일화를 들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포교를 할 때 어느 날, 코끼리를 보고 쁘스님께서 물었습니다. “너에게 불성이 있느냐? 이 몸에 집착하지 말고 후생에는 사람 몸을 받아 불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라. 여기 너를 위해 귀의삼보 하옵나니.” 그 소리를 듣고 코끼리는 눈물을 흘리며 쁘스님께 삼배를 올렸다고 온사스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승산 쁘스님처럼 개나 고양이와 대화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때인가 개에게, “너에게 불성이 있니?”라고 물은 적이 있는데, 그 개는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운문사 삼성각 부전을 살았을 때, 고양이가 문 앞에 앉아 있어 제가 쫓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구나’ 금새 뉘우쳤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를 들어오게 한 후, 부처님께 함께 예배하고, ‘네가 불성이 있니?’ 하고 물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 애옹, 애옹,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처님과 승산 쁘스님, 그리고 온사스님을 따릅니다. 오직 불법만이 바른길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2004년 승산 쁘스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화계사에서 쁘스님을 다시 뵐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이 질문이 쁘스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

성불하십시오. ●

\* 선지스님은 승산스님께서 설립하신 홍콩의 수봉선원(秀峰禪院)에서 향음(香音)스님을 온사스님으로 2004년 삽발염의했습니다. 한국불교의 간화선을 배우기 위해 유학왔으며, 현재는 운문사 강원의 사교과에 재학 중입니다.

## 불자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남준호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사무팀장



이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은 한국사회를 바른 다문화사회로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리라 확신한다.

다문화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여성, 그 자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이야기 해야 한다. 그러나 지면상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시작, 즉 ‘한국사회의 이주현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이주현상이 이주노동자 문제 - 결혼이주여성 문제 - 다문화가정 문제 - 다문화가정자녀 문제 -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문

제)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진 않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일부 논리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와 다문화사회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자녀… 요즘에는 쉽게 들을 수 있고 쉽게 그들과 한국사회를 연관시켜 다양한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여성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보고,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간혹 보기도 해서 이제는 낯설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다문화사회란 어떤 사회가 다문화사회일까? 말 그대로 여러 문화가 모여 함께 살아간다면 다문화사회일까? 다양한 문화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종교갈등, 민족갈등, 문화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한국사회에 적용하여 생각해보자. 한국에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이민 1세대, 이민 2세, 이민 3세가 인구의 5% 이상이 된다고 한다.

수치가 5%라면 그들의 친구, 직장동료, 기타 인간 관계를 다 떠지면 실제 대부분의 사람이 이민자와 그 후손들과 같이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미래의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양상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즐겁고 희망찬 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 갈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외국인들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할까? 아니면 그러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할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간단하게나마 알 필요가 있다.

### 외국인과 이주민

우리는 흔히 ‘외국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외국인이라는 말은 국가를 기준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차이,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이주 노동자, 이주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주민이라는 의미는 ‘이주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 사람의 국가·인종·민족 등의 내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단지 이주를 하였는가에 대한 내용만을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권적 측면에서 불법체류 자라는 말 대신 미등록 체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 이주민, 그들은 누구일까?

유엔은 “1년 이상 의도적 체류를 통반한 국제적 이주”를 이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영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일시적 취업을 위한 ‘이주노동’까지 포함한다(U.N.). 유엔이 조사한 전 세계 이주민의 수는 213,943,812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2억 1,394만 3,812명

의 이주민이 국가를 이룬다면, 세계에서 인구가 다섯 번째로 많은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sup>1)</sup>

### 대한민국의 이주민 현황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이 1,208,544명을 기록하여 120만을 처음으로 돌파하였다. 이 중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876,401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이 481,761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90,467명(10.2%), 필리핀 38,976명, 태국 27,931명 순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재중동포와 중국 출신이 전체 등록외국인의 50%가 넘는 실정이다.

### 이주민의 구분과 정책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구분은 우수 외국인력,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재중동포, 숙련생산 기능 인력,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나뉜다. 이러한 구분은 이들을 대하는 정책적 구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아래의 표는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국사회의 이주민 구분과 정책의 전반적인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의 내용은 국제결혼 정책과 외국노동인력 정책의 두 가지 구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 정책의 대상자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해서는 국적에 의한 통합을 시행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중 대부분이 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여성이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시행 정책은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것은 좋으나, 그 방법과 내용에 관해서는 한국사회의 문화를 주로 주입하는 경향이 아직 남아 있는 편이라 우려스럽다.

둘째, 외국 인력정책으로써 우수 외국 인력에는

1) 국가별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대략 중국(13억) > 인도(11억) > 미국(3억) > 인도네시아(2.3억) 순이다. 참고로 브라질은 2억에 약간 못 미치는 1.9억 정도이다.

적극적 개방을 하며, 단순노무인력에는 관리 및 통제를 하고 있다. 재중동포는 민족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나, 현상적으로 볼 때 포용적인 형태의 외국 인력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는 철저한 배제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 형태로 속련생산 기능인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제도가 있으나 실제 그 수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국제결혼 정책과 외국인력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정부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문화다양성이 존재하는 다문화사회보다는 한국사회의 보수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보수주의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나, 이러한 관리·통제, 배제의 과정에서 생기는 인권의 문제와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표 1. 한국사회의 이주민 구분 )

이주민 구분	정책 기조	시행 정책
투자 외국인, 우수 외국인력	적극적 개방	이중국적 허용, 영주권 요건 완화
결혼 이민자, 자녀	국적에 의한 통합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재중동포	민족 관점에 의한 포용	체류기간 연장
속련생산 기능인력	선별적 수용	거주(F-2) 요건 완화
이주노동자 (단순노무인력)	관리·통제	고용허가제 개정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제	단속

#### 우리가 불러온 이주노동자

UN의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조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란 그 사람이 국적을 갖

지 않는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UN, 1990).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된 것은 보통 1986년 아시안게임 전후로 보고 있다. 즉 아시아 내에서 한국의 발전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온 것이다.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차이가 커지면서 중소기업 생산직의 인력난은 심화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초 주택 건축 붐으로 제조업 노동력이 건설업으로 빠져나가면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공백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온 것이다. 즉 3D산업에 종사할 사람이 없으니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게 된 것이다. 만일 한국의 기업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었다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아마 없었거나 극소수였을 것이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의지만으로 한국 사회에 오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사실은 현재의 한국 사회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이주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이다. 결국 한국 기업에서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이주노동자는 정책적으로 한국에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만들어 낸 문제와 우리의 책임 분까지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 불교와 이주민

한국사회의 이주현상은 불교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이주현상은 당연히 전 세계적인 이주현상과 그 궤를 같이하나,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아 내에서의 이주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문화권은 불교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경우, 31.5% 가 불자이며, 친불교계 성향을 합치면 더욱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이주민은 점점 많아져 2050년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가 216만에 달하며, 그 시점까지의 이주노동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하게 수치를 적용한다고 하면 416만의 1/3인 130만 명 정도의 불자가 한국사회에 있는 것이다.

#### 서양 인권만으로는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사회의 이주현상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시아 내에서의 이주현상이다. 결국 동양이라는 문화권, 그리고 그 문화권을 대표하는 불교문화 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서양의 문화로 동양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듯이, 동양의 문제는 동양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이주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권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때 인권이라 함은 서양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인권, 즉 서양 인권을 말한다. 이러한 인권에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나 권리란 다른 이의 권리와 배타적이라서 갈등이 일어난다. 결국, 모든 사람이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즉 중생은 번뇌에 쌓여 있기는 하지만 본래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안목선).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다른 이를 대함에 있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세상은 상호의존성으로 존재하며, 나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본성은 본디 청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이나 혹은 타인이 청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의 먼지에 의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현재 어떤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악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본래의 청정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즉 외부의 객진을 털어버리고 개과천천 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의 존귀함을 받아들이며 더욱 정진해야 하며,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해서도 화신불로 대해야 할 것이다.

#### 이주민을 대하는 불자의 자세 - 불교 인의(人義) 와 팔정도로 이주민을 대하자.

필자는 불교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불교 인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한다. 서양 인권이 “인간의 … 권리”라면, 불교 인의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 의무를 얘기하였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각자의 입장에서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에 서로 충실했을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세부적인 실천지침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 自性清淨心客塵煩惱染

본래 본성은 청정한 마음이지만, 바깥으로부터의 번뇌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

-〈증지부 五集〉 중에서 -

초기불교에서는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지만, 그 마음은 객진에 오염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자체로 청정한 빛이지만 바깥으로부터 유입된 티끌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 우리의 손에 달린 우리의 미래

필자는 한국사회는 아직 다문화사회가 아니라 다문화사회가 되어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지는 우리의 관심과 실천에 달려 있다. 외국인 혐오증으로 얼룩진 미래도, 문화다양성으로 더욱 발전할 미래도 우리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아름다운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좀 더 이주민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해야 할 때이다. ●

#### 〈참고문헌〉

UN, 1990,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 안목선, 2008, 「불교와 인권」, 불교시대사.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는?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의 불교계 이주민지원 단체의 협의체로 2006년 발족하였다. 현재 18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에서 이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교육, 쉼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 물리학과 불교

편집부

'문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난처한 일'

처리하기 곤란하단 말은 결국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뜻이다. 성급하게 문제를 풀려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내가 가진 고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사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분명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피로운 것이다. 불만은 그래서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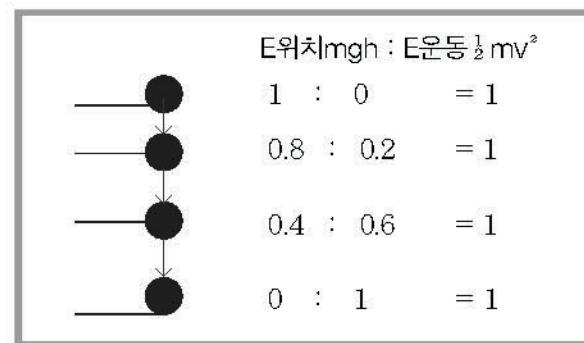
불교에선, 이 불만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방법으로 참선, 염불, 간경, 울력과 같은 수행을 제시한다. 이러한 수행들을 통해 불성을 깨닫는 것이 목적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불성은 이미 내 안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구족됨)을 가리킨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 스스로 너무나 잘 안다. 핵심은 '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단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해결 = 시간 + (→) 답의 발견**

얼마나 걸려야 이 답답한 고민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노력의 정도에 따라,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답에 도달하는 시간은 단축될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E_{\text{위치}} = mgh$$

물리학에서 보면 떨어지는 물체의 E(에너지)는 같다. The conservation law of Energy, 엔트로피 제 1법칙<sup>1)</sup>에 따르면 E의 형태(모습)는 달라질지언정 에너지의 양은 같다. 다음 그림을 보면,



위치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운동에너지가 늘어난다. 에너지의 형태만 변할 뿐, 본질적인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같다.

위치 E를 우리가 찾는 문제의 답이라고 한다면 mg는 우리의 노력 정도, h는 답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자. 그럼, E의 양이 같다고 할 때, 우리의 노력 정도에 따라(mg에 따라) h는 짧아질 수 있다. 물론, 위의 물리 공식처럼 모든 것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법칙이 증명되는 사례는 많다. 예를 들어 단기간 집중력으로 높은 시험점수를 얻었다든지, 보통 4년 걸릴 일을 1년 만에 해냈다는 등등.....

우리가 사는 현실에선 고정된 답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뿐인 깨달음도 없다. 문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답을 얻어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라 해서 완벽한 삶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성공한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만한 나만의 방식이 있느냐 하는 문제다.

공이요, 무아요, 하는 것들은 정해진 삶이 없음을,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함을 가리키는 용어들이다. 우리의 번뇌는 틀림을 고집하는 데서 생긴다. A라 정해놓고, 아니처럼 A 안에 조금 틈이 생겼다고 해서 저건 A가 아니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의 번뇌는 시작된다. A이것도 A요, A이것도 A요, A이것도 A이다. 다양한 모습들의 A들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여유로워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고민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저마다의 목적지가 어디 이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넓은 시각, 여유로운 태도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스스로의 해답에 당도하는 길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

1) 엔트로피 제 1법칙 : 우주의 E 총량이 일정함을 가리킨다. : E는 창조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우주 E 총량은 대초부터 정해져 있었고 우주 종말이 올 때까지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즉 제1법칙은 에너지보존 법칙으로 에너지는 결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한 가지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이다.

ex) Isaac Asimov 아이작 아시모프(러시아 태생의 미국 생화학자) : 일정량의 열을 일(운동)로 전환했다할 때, 이 과정에서 열은 파괴된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된 것이다. /『엔트로피 entropy』, 제레미 리프킨 지음(세종연구원).



## 삼보에 귀의합니다.

글 / 그림 사미니과 협사

우리가 부처입니다

우리의 言行이 불법입니다

우리의 一心이 승가를 이룹니다.

## 운문사 처진 소나무

성업 / 사미니과

굽이굽이 산길 따라

골짜기 골짜기

구름 문 열고 들어서면

뜰 밖에 부처가 있어 미소로 가락을 짓고

뜰 안에 부처가 있어 솔가지 흔들어 장단을 맞추네

옛 어느 조사의 서슬 펴런 수행을 보았음일까

가고 오는 계절마저 비키어 놓고

이른 새벽 안개에 감싸인 채

홀로 푸른 오백 년!

사모의 님 마주 앉아

목언의 선문답 이어가네.



## 열정과 패기

- 제15회 동문 능인고등학교 아용스님을 뵙고 -

성우 / 사교과



는데 이곳이 아용스님이 계시는 곳이다.

법당 건물을 몰라 발품을 팔다 찾은 반야전 건물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사이 아용스님이 잠긴 문을 열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다.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개인 시간을 내어주신 스님께 감사했다. 법당 건물은 전체 3층이 었다. 우리는 1층 교법사실에서 만났는데, 앉자마자 손수 만든 명종정과와 차를 내주신다. 빼곡히 차입는 한쪽 벽면의 장서와 네다섯이 있는 소파, 책상 위의 반가사유부처님, 창문 가의 테라코타부처님, 소박하지만 아용스님이 학생과 만나는 공간이다. 우리는 학생처럼 앉아 인터뷰에 들어갔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을까. 난 인터뷰할 만한 게 없는 사람인데요. 뭘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가요?(하하)”라고 말씀하시는 스님. 한 마디가 명쾌하고 회통하시다. 인터뷰는 스님이자 선생님으로서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고등학교에 스님인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 신기했던 말에 요즘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하신다.

“자격은 교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학교에서는 우리 같은 스님이 있는 것, 우리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가 포교가 돼요. 저희 학교의 경우 종교수업을 따로 하진 않지만, 입학할 때와는 달리 졸업할 때엔 불교도가 되거든요. 후배 스님들 가운데서도 원력을 가지고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물론, 말씀은 쉽다 하시지만, 스님이 이 길을 택했을 당시만 해도 스님이 ‘선생님’이란 직업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을 것이다. 스님은 어떻게 이 길을 택하셨을까?

“우리 때는 동국대만 간다 해도 ‘스님이 중불 안든다’거나 ‘속퇴한다’고 어른 스님들이 싫어라 할 때이니까요. 저는 처음에 수좌가 되려고 발심 출가했는데, 강원을 졸업할 즈음에 고민을 참 많이 했나 봐요. 위장병이 생겼었거든요(웃음). 그러다 인연이 돼서 동국대에 가게 되고 석사과정 중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를 보고 ‘선생님이 돼야겠다.’ 생각했죠. 그전엔 한 번도 선생님이 되겠단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글쎄 생각한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능인고에 온 것이 벌써 20여 년 전 일이에요.”

목소리와 모습에서 사오십대라 생각했는데 예순이 넘으셨단다. 더욱이 져잖은 교직경력이 놀라웠다. 요즘 남학생들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에 “옛날 같지는 않아요.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 세대라서 사람들끼리 나누는 정은 옛날보다 덜해요.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 이 공간이 항상 학생들로 북적 댔는데, 늘 파자를 한가득 사는 것이 일이었죠.” 말끝에 선생님으로서의 아쉬움이 가득 묻어났다. 그래도 공간 한 벽면에 걸린 스님의 초상화엔 학생의 사인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느 학생에겐 잊지 못할 온사이신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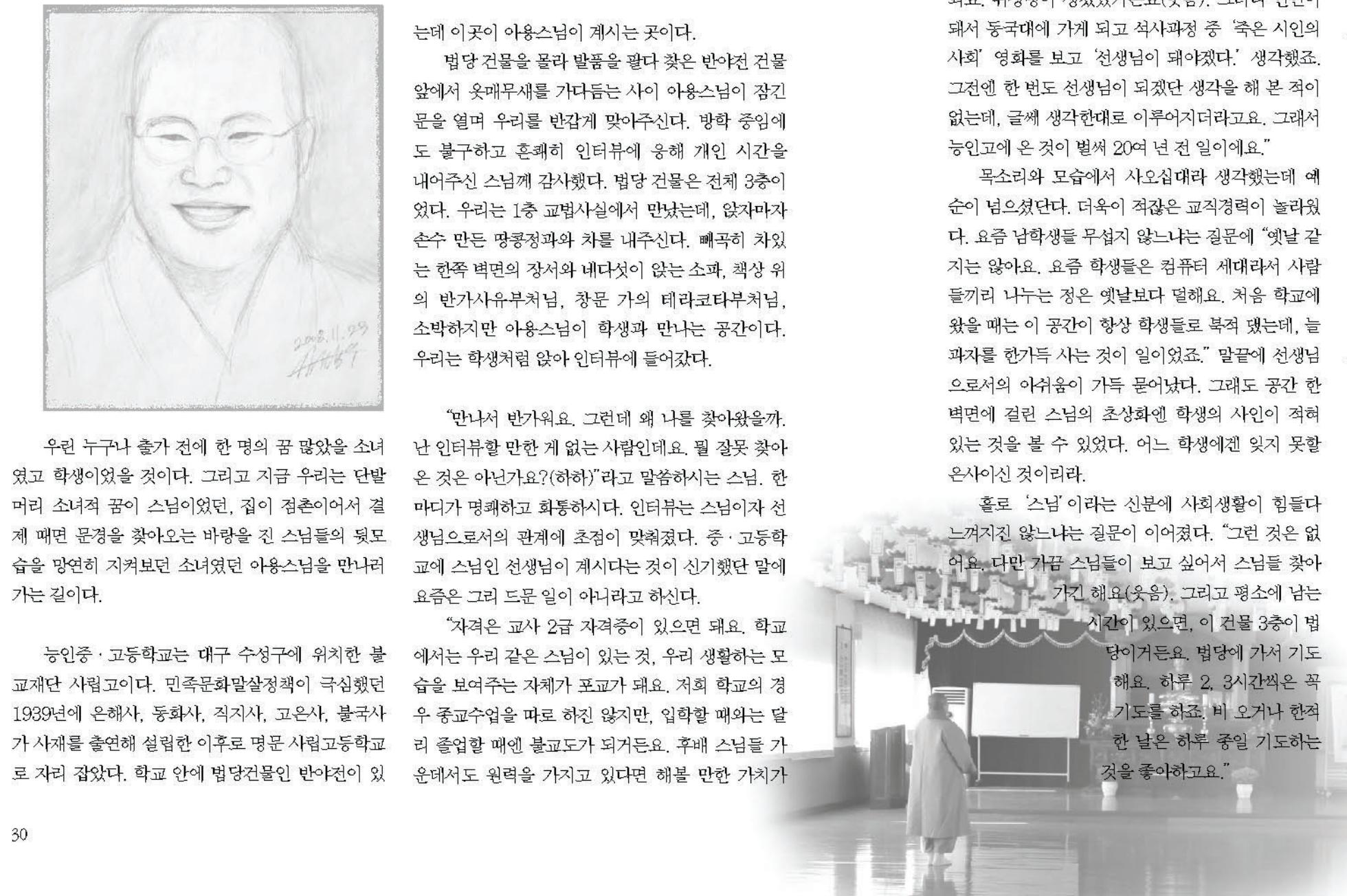
홀로 ‘스님’이라는 신분에 사회생활이 힘들다 느껴지진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그런 것은 없어요. 다만 가끔 스님들이 보고 싶어서 스님들 찾아

가길 해요(웃음). 그리고 평소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이 건물 3층이 법당이거든요. 법당에 가서 기도 해요. 하루 2, 3시간씩은 꼭 기도를 하죠. 비 오거나 한적 한 날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내심, 선생님이란 사회인과 스님이란 성직자의 신분 사이에서 평행선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스님의 답은 “기도”였다. 스님께는 일상생활 속 바쁜 가운데서의 기도가 수행이었고 힘이었으리라.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학부 모들과 함께 자비도량참법기도, 다라니기도, 수능기도, 또 대구 교사불자련 경전강독법회 등 안팎의 기도활동을 보면 확실히 스님에게 기도는 힘의 원천인가 보다.

방학이면 바랑 하나 짊어지고 세계 각국을 여행하셨다는 아용스님, 당당하고 우렁찬 목소리에 취해 듣다 보니 어느 새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났다. 마지막으로 후배 스님들에게 해 줄 말을 묻지 못했는데, 그 마음을 읽으셨을까. 점심공양을 사 주시면서 요즘 후배 스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패기’라 하신다. “요즘 출가하는 스님들은 다들 학력 좋고 똑똑하잖아요. 그렇지만 옛날 스님들 만큼 재미도 없고 패기도 없는 것 같아요. 똑똑한 만큼 패기 있게 열정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패기와 열정, 어쩌면 우리가 오래전에 잊어버린 두 단어가 아닐까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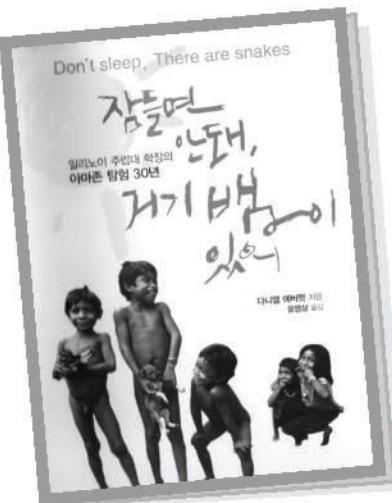
학교라는 공간에서, 스님이자 선생님인 아용스님. 체구는 작지만, 그 속에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 가는 힘을 엿보았다. 생각 그 자체가 길을 내주더라는 선배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길을 만들어가야 할 때일 것이다. 선배님의 말씀처럼 좀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현재를 살아가도록 학인으로서 패기와 열정을 되살려 볼 일이다. ●



# 잠들면 안돼, 거기 뱀이 있어 백과사전들의 향연

- 다니엘 에버렛의『잠들면 안돼, 거기 뱀이 있어』를 읽고-

일혜 / 보현율원



이 책을 읽는 동안 떠올랐던 의미심장한 웃음의 기억 하나. <중국의 한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동물 분류법이 나온다고 한다. “동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황제에게 속한 동물, (b)향료로 처리하여 방부 된 동물, (c)사육동물, (d)젖을 빼는 돼지, (e)인어, (f)전설상의 동물, (g)주인 없는 개, (h)이 분류에 포함되는 동물, (i)광포한 동물, (j)셀 수 없는 동물, (k)낙타털과 같이 미세한 모발로 그려질 수 있는 동물, (l)기타, (m)물주전자를 깨뜨리는 동물, (n)멀리서 보면 파리같이 보이는 동물.” (미셸 푸코,『말과 사물』, 서문 中재인용)

어이없는 웃음이 터진다. 이것이 ‘분류’라고? ‘척추동물’이나 ‘포유류’를 기대한 것은 아니다. 엄격한 객관성을 기대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한 번도 본 적조차 없는 ‘물주전자를 깨뜨리는 동물’이라니! 그러나 알 수 없는 당혹스러움이 남는다. 기묘하게 웃는 시선이

어느새 우리를 향하고 있다. 우리의 <백과사전>을 보며 누군가는 혹시 웃음을 터뜨리지 않겠는가? 물주전자를 깨뜨리거나 말거나, 광포하거나 말거나, 오직 척추의 있고 없음이 더 소중한 우리의 분류법에 누군가는 어이없는 표정을 짓지 않겠는가! 낯선 시선은 우리의 사물 분류 방식이 얼마나 우연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던져준다. 우리의 언어와 인식체계가 어떤 특정한 무늬로 짜여 있는지 전체를 내려다보는 칠나의 조망권을 선사한다.

『잠들면 안돼, 거기 뱀이 있어』의 저자 다니엘이 아마존 정글의 피다한 마을에서 맞닥뜨렸던 상황이 바로 시종일관 그려졌다. 지난 200년간 어떤 외부인도 피다한의 언어를 터득하지 못했고, 400여 명 남짓한 피다한 사람 중에는 아무도 자신들 말 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휘사전도, 문법 매뉴얼도, 중간 매개언어도 없이 동물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외국어를 습득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다니엘은 자신이 말하자면 <아마존의 한 백과사전>과 조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엔 깨닫지 못했다.

성경번역과 선교의 두 가지 임무를 떠고 피다한에 처음 들어갈 때 그는 낙관적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언어에는 ‘보편 문법’이 존재한다는 믿음,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 인식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보편적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과 신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숫자, 수량, 색깔, 오른/왼쪽 방향 등을 나타내는 날말이 없고, ‘고맙습니다/미안합니다’와 같은 관용어구도 없으며, 구나 절 등의 통사구조가 없는 피다한의 독특한 언어체계와 30년간 좌충우돌하면서 다니엘은 서서히 자신 앞에 펼쳐진 <아마존의 한 백과사전>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경과 신이라는 자신의 <백과사전>에 대해서도.

‘잠들면 안돼, 거기 뱀이 있어’는 피다한의 밤 인사법이다. 우리말의 ‘잘 자’에 해당한다. 정글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피다한 사람들은 절대 숙면을 취하지 않는다. 15분 내지 2시간씩 평생 토막잠을 나누어 잔다. 게다가 매일 먹지도 않는다. 배고픔을 견디고 적게 자는 것이 자신들을 강하게 단련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먹을 것을 비축하는 법이 없으며 도구의 향상에도 무관심하다. 필요할 때 바나나 잎으로 즉석에서 바구니를 짤 뿐, 좀 더 질긴 바구니로 오래 쓰기를 도모하지 않는다. 다음 해 농사를 위해 쟁기를 보관하는 일도 없다. 잠도 음식도 물건도 잉여분이란 없고 따라서 소유나 축적을 모르는 그들이 주거하는 집은 비를 막아줄 지붕만 있을 뿐 사방에 벽도 없다. 나무기둥 6개짜리 벽 없는 집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웃고 떠든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족함은 물질뿐만이 아니다. 피다한 사람들은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니면 믿지 않고 말하지 않으며 언제나 증거를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그들에게 구전이라는 양식도 없고 그 혼한 창조 신화도 없다. ‘하느님’이나 ‘천주’처럼 이른바 격의(格義)를 통해서 신의 관념을 덧입힐 수 있었을 창조자, 절대자의 관념이 그들에게는 터득만큼도 없었다. 피다한 사람들은 세계의 시초와 끝이 궁금하지 않으며, 더구나 땅과 땅과 인간이 창조된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한다. 물질이고 정신이고 그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명을 완강히 거부하는데 이유는 간단했다. 필요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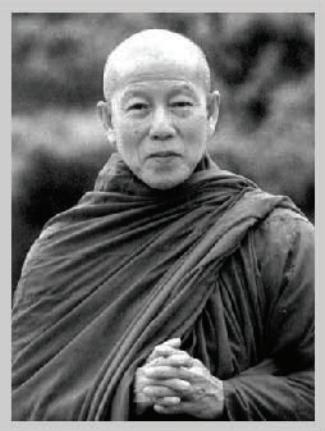
또 하나! 그들에게 ‘걱정’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으며, 죽음조차 아무런 추상적 설명 없이 담담히 받아들이는 피다한 사람들에게 구세주로서의 신도 군더더기의 개념에 불과했다. 삶의 결핍감이 없는 곳엔 구원도 있을 수 없다. <아마존의 한 백과사전>은 다니엘로 하여금 신이란 삶의 결핍감이나 죄의식과 한 꾸러미의 관념이라는 것을 통찰토록 했다. 죄의식은 걱정, 불안, 우울,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서구문화의 산물이며, 자신이 갖고 있던 <백과사전>에만 유효한 분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의 자족함을 미개인의 행복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본인의 변화를 선택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마이시강의 한줄기 바람결에, 그는 신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다.

우리는 매 순간 익숙한 체계 안에서 끊임없는 분류작업을 하며 살고 있다. 가끔 드물게 남의 <백과사전>을 들여다보고 타자의 시선과 조우하기도 한다. 낯선 시선을 발견한다고 해서 누구나 곧 바로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우연히 조합되었는지를 통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혹시 우연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누구나 삶의 실천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독단적이지 않을 수는 있다. 나의 세계에서 언어와 사물과 가치와 정서 등을 분류하고 배치하는 모든 규칙에 여전히 현신적이되, 그것들의 우연성을 인정하면서, 너와 당신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 방금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간 무엇이 혹시 ‘물주전자를 깨뜨리는 동물’이 아니었는지 한 번 돌아볼 수만 있다면 말이다. ◉



## 킬링필드의 살아있는 부처

서경 / 사집과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에 앞장서 온 승산 스님과 함께 4대 생불로 추앙받는 고승들 · (티베트 망명정부의 최고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캄보디아의 간디'인 마하 고사난다 스님, 프랑스 플럼빌리지 수행공동체를 이끄는 베트남 출신의 턱낫한 스님) 그중에서도 고사난다 스님은 따스한 인간성과 위대한 자비심으로 국민에게 재건의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또한 캄보디아 평화운동의 상징,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아버지, UN의 평화중재자, 살아 있는 국보, 때 순간 세상 모두를 향해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다.

1929년 메콩 델타 지역의 비옥한 평야 지대에서 태어난 스님은 8살 때 인근 사찰에서 심부름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14살이 되자 그는 부모에게 자신의 출가를 허락해 주기를 간청했고 바람대로 이루어졌다. 프놈펜의 불교대학을 졸업한 후, 바탐방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다시 캄보디아를 떠나 인도 비하르의 나란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곳에서 그는 필리어 시험에 통과한 뒤 30살이 되기도 전에 위대하다는 뜻의 '마하' 칭호를 받았다. '마하 고사난다'라는 그 이름은 '위대하고 유쾌한 선언자'를 뜻한다. 그 뒤로 일본, 태국, 미얀마 등을 거쳐 수행과 학업이 계속 이어졌으며 또한 스님이 해독할 수 있는 외국어는 하나둘씩 늘어 1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캄보디아에 대전이 발생했을 때 (킬링필드 사건은 1975년부터 1979년 사이, 민주 캄푸차 시기이 캄보디아의 군벌 셀로스사르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라는 무장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이다. 크메르 루즈는 3년 7개월간 전체 인구 700만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을 학살했다) 그는 태국 남부의 숲 속에서 명상과 고행을 하며 극심한 혼란으로부터 도망치듯 떠났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족들

대부분은 캄보디아에서 군인들에게 살해당했다. 조국을 삼킨 엄청난 비극에 스님은, 동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려는 듯 엄청난 원력으로 비폭력 운동에 뛰어들었다. 캄보디아 - 태국 국경에 위치한 모든 캄보디아 난민촌에 사케오(Sakeo), 카오이당(Khaereedang) 사원 등의 절을 지었으며, 여러 난민촌을 돌아 다니며 피난민들의 의식속에 불법을 다시 일깨우기 시작하였다. 부처님께서 하신 것처럼, 스님의 노력은 사랑과 자애로움으로 민중들에게 스며들었으며, 36살 되던 해에 스님은 캄보디아를 떠나 태국 남부의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 수행하였다. 그곳에서 수년을 보낸 후, 킬링필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캄보디아 재건 및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쉼 없이 노력했다.

1981년 UN은 캄보디아의 미래를 논의할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 이때 스님은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의식을 주관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한 크메르 루즈 지도자가 스님에게 다가가 태국 국경 근처에 사원을 건립해 줄 수 있는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은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때 많은 참석자들은 "오우! 고사난다 스님이 적과 대화를 나누고, 적을 돋겼다고 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스님은 "사랑은 그들이 고귀하거나 저급하거나 간에,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모든 생명을 감싸 안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스님은 독재자를 사랑하는 것, 즉 캄보디아인들이 크메르 루즈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풀지 않았다. 그러나 복수와 증오, 앙갚음은 멈출 수 없는 윤회를 되풀이하리란 것이 우주의 보편적인 진리이므로 스님은 "화해는

우리가 정의와 조건에 굴복했다는 의미가 아니기에, 오히려 우리는 모든 협상자들에게 사랑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인들이 크메르 루즈를 사랑해야하는 것처럼, 자신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나 역시 그것을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세상 이치이기 때문이다. 증오와 복수는 끝없이 돌고 돌기 때문에 화해란 결코 권리와 조건의 포기 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협상 과정을 통해 사랑과 이해를 발휘하는 일이다.

"그것은 적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적과 우리는 모두 사물의 이치에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직 자비심과 올바른 집중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모두 각자의 구제(救濟)와 행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비행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보실행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를 무명에서 광명으로 이끄는 방편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2007년 입적하시기 전까지 국제적 평화운동에 앞장섰다. 이러한 스님의 따스한 인간성과 위대한 자비심이 그를 '캄보디아의 간디'로 불리게 했지 않았을까 싶다.

'자비와 평화' 뭔가 모를 뭉클함이 내 가슴속에서 느껴진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 스님의 자비와 평화의 정신을 깊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뜻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수행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정진하기를 굳게 다짐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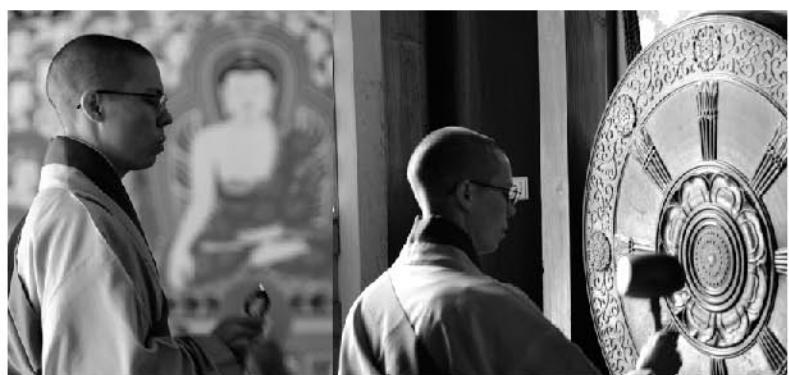


至心歸命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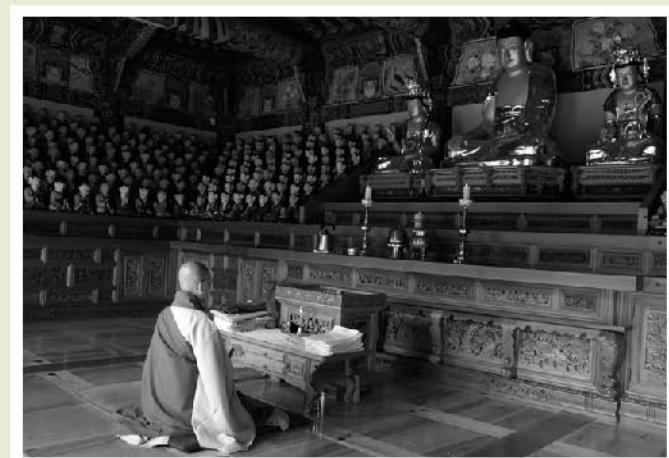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네.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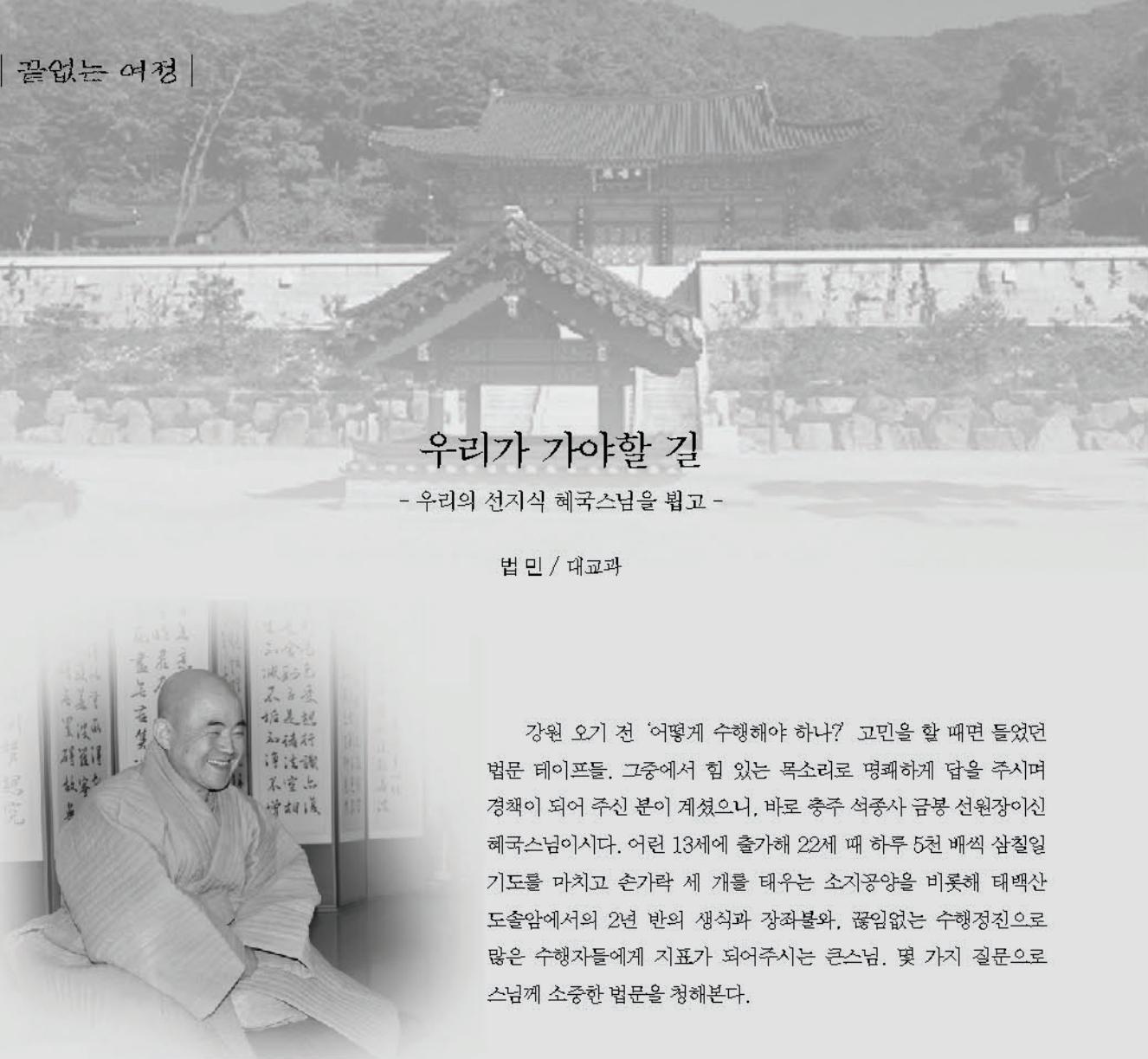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돌아가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 우리가 가야할 길

- 우리의 선지식 혜국스님을 뵙고 -

법민 / 대교과

강원 오기 전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고민을 할 때면 들었던 법문 테이프들. 그중에서 힘 있는 목소리로 명쾌하게 답을 주시며 경책이 되어 주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충주 석종사 금봉 선원장이신 혜국스님이시다. 어린 13세에 출가해 22세 때 하루 5천 배씩 삼칠일 기도를 마치고 손가락 세 개를 태우는 소지공양을 비롯해 태백산 도솔암에서의 2년 반의 생식과 장좌불와, 꿇임없는 수행정진으로 많은 수행자들에게 지표가 되어주시는 큰스님. 몇 가지 질문으로 스님께 소중한 법문을 청해본다.

큰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지식과 도반은 수행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창 선방에 다니고 절에 들어와 짚은 시절을 보낼 때는 선지식이 참 많았지. 이름을 열 손가락에 다 꼽지 못 할 정도로 아주 많았는데, 그렇게 훌륭한 선지식이 많이 계셨는데도 그 당시엔 '아 저분이 저렇게 훌륭한 선지식이구나. 저분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선지식이 옆에 있어도 선지식인 줄 모르고 살았단 이야기라. '아 저분이 선지식이다.' 말로만 그랬지. 내가 저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참 열심히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선지식을 모실 수 있는 공간, 내 마음 안에 선지식을 모실 공간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바깥에 선지식이 아무리 많아 봐야 그건 선지식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와서 기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스님 될 때 호봉스님, 동산스님, 금오스님 등 그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계셨지만 그런 분들을 정말 고귀한 분이다 하고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중이 되어가지고 모두 몇 년 있다가 입적하셨는데도 그분들 영향을 내가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식이란 내 마음에 그 어른을 모실 공간, 내 마음에 그릇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가 선지식이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지. 바깥에 있는 선지식 가지고는 안 돼. 내 안에 선지식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발심이

돼야 되고 그런 원력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이야기라.

도반도 그래. 도반의 은혜는 선지식 못지않다고 생각해. 부처님 말씀에도 "도반이 공부를 반은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도반이 공부 전체를 해주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 하셨잖아. 당장 스님들만 해도 그래. 큰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 도반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같이 자게 만들고 좋으나 싫으나 이 길을 가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도반이 그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도반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도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정말 내가 내 귀에 맞는 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보다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늘 지적 못 하면 몇 월, 며칠 포살하는 날만이라도 내 잘못을 좀 지적해 달라. 나도 스님 잘못 지적해 주겠다. 서로 그런 약속을 하기지고 도반이 지적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지적을 안 해 줄 땐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분들이 지적해 주면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전혀 속에 앙금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면 주위 도반은 생기게 마련이야. 한 번 말해주어서 그걸 짜증 내고 영 안 좋게 받아들이면 누가 말을 해 줄 수 있겠나.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도반을 좋은 도반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쁜 도반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겠지.

지금 변화하는 강원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참선에 대해 학인스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교육원에서 그렇게 강원을 대학식으로 하려고 할 때는 원체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복잡하다는 얘기겠지. 지금 사회에 불교가 무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길을 찾았겠지마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학식보다는 옛날 그 강원에서 가르쳤던 방법, 많이 기억하고 많이 외우고 뭘 많이 아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노스님들이 사시는 모습을 늘 보면서 노스님들이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삶으로 바로 배우는 강



원교육이 훨씬 더 좋다고 난 생각해. 왜 그려냐 하면, 대학식 교육은 암기라든지 이런 지식은 좀 더 많이 늘어나겠지마는 중물이 들기가 좀 힘들어. 중물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얘기고 수행자다워진다는 건데 수행자가 수행자답지 못하면 그건 학자 밖에 안 되는 거여. 많이 아는 사람 밖에 안 되는 거여.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무척 고민하다가 한 일이지만 이게 우리 개인으로 받아들일 때는 아 '저건 참 아쉽다' 생각돼.

강원 4년 세월은 어쩌면 중물 들이는 시간인데, 중물 이런 것은 참 부처님 앞에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느냐 또 얼마나 내가 바로 살까 하고 발심하고 원력을 세우는 신심이라야 되지 많이 기억하고 많이 배우는 것은 그건 중물 들이는 데는 오히려 느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강원교육을 어쨌거나 좀 해기지고 대학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바꾸더라도 어떻게 하면 중물이 푹 익어지도록 할까 거기에는 초점을 맞춰야 할 거야. 그렇지 않고는 수행자다운 수행자가 나올 수가 없어.

삶이란 가슴으로 사는 것이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 그리고 나는 아무리 대학식으로 교육이 바뀐다 하더라도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은 반드시 참선을 해야 한다 생각해. 참선이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 참선 안 하고 체험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 안 그러면 무심삼매에 들어가도록 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더라도 일념이 되도록 해야 되지 그냥 체험 없이 수행자가 자리 잡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여. 그래서 참선이란 것은 대학식으로 하든 강원식으

로 하든 결국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왜냐하면, 바깥으로만 향하는 모든 마음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내 내면으로 찾아 들어갈 때 중들이 들고 옛날 조사스님들이나 선사들에게 이어지지 바깥으로 추구해 가지고는 찾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여. 그러니까 참선이란 게 다른 게 아니거든. 내면의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모든 쓰레기를 가리앉혀 가지고 내면을 비워나가는 세계니까. 모든 업이나 모든 번뇌망상은 내 몸 안에 기득 차 있는 그릇이고 저 그릇을 비워버리면 빈 그릇이 되듯이 이 안에 있는 번뇌망상 비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란 말이야. 모르는 데로 돌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모른다. 부처님은 왜 꽂을 들었을까? 모른다. 조주스님은 왜 무라고 그랬을까? 모른다. 그 모르는 속으로 들어가고 모르는 게 뭐야? 백지잖아. 안에 있는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바꾸면 백지로 바꿔진다 이 말이야. 의식이 전환되어 모르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까지 백지가 되는 거여. 텅 빈 거여. 텅 빈 거는 더럽힐 수 없어. 더러워지질 않아. 그래서 대학식으로 백 번 가더라도 결국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 비우느냐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말씀한 마음 비우는 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참선 안 할 수 없는 거여. 참선이란 것은 뭐 새로운 거 찾는 거 아니잖아. 부처님이 다 보여주신 거고 그냥 내 마음을 비우는 자리, 그릇 비워버리면 빈 그릇 되듯이 내 마음을 비워가는 재미는 그것은 해본 사람 아니면 몰라. 참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안 해봐서 하는 소리야. 해봐라. 해보면 ‘아, 참이 불교가 참선법 하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보배구나.’ 하는 줄 알게 돼.

요즘 많은 스님들이 사회복지, 호스피스 등 많은 전문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생각하는 요즘 승려상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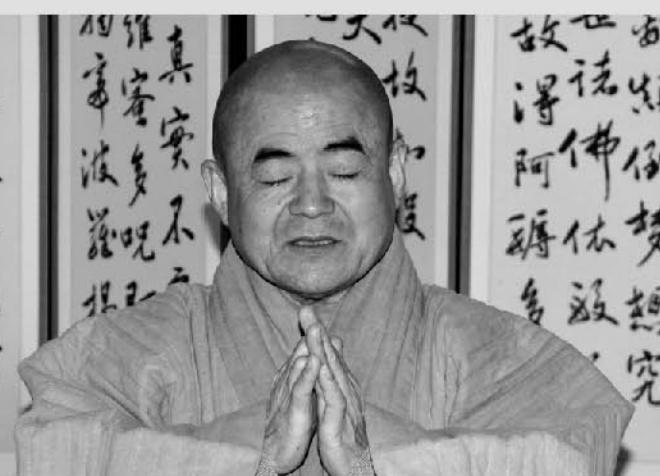
나는 전문성으로 가야 된다는데 적극 찬성이야. 스님보다 전문성이 어디 있나! 스님이 스님 전문을 하려고 이리 들어온 거 아니나. 그 스님 전문만 잘 지켜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그림자여. 예를 들어보자. 나는 제주도 남국 선원에서도 참선하고 부산 홍제사에서도 재가자 선원을 하고 여기도 선원을 하는데 참선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 절로 그 밑에 산심을 일으키는 신도분들이 부산에도 전문 요양원을 108명 것을 허가를 받아 지금 준공해서 부산에서 입소자를 받고 있거든. 여기도 지금 재가자들이 전부다 ‘스님 이렇게 할 꺼니까 스님은 기끔 공부하는 여기에 와서 정신적인 그런 안정하는 그것만 가르쳐 주십쇼’ 하거든. 그래서 70명 허가받아서 이번 봄부터 짓게 돼. 스님 전문성만 가면 이건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런데 스님들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좋아. 그러나 수행의 길로 갈 사람은 기도를 했던 경을 보았던 참선을 했든 그 길만 열심히 가서, 가다 보면은 이게 전문이여. 우리는 수행자 전문이니까, 아주 난 전문성에 찬성인 사람이여. 그런데 전문성을 잘못 알고 있어. 스님네는 스님이 전문이란 말이여. 한평생 스님 전문으로 잘 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여. 정말 스님이 스님 전문성 잘 가면 그런 건 안 해도 신도들이 산심을 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런 건 다 놓아두고 만일 스님들이 다 전문성으로 가봐. 20년 30년도 못되어서 스님네다운 스님이 하나도 없고 다 속가로 가 버리면, 빨리 산으로 가라며 신도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가 올꺼여. 물론 과도기여서 그렇기는 하지만 스님네는 어쨌거나 스님네 전문을 가야 돼. 스님네가 전문성이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나아가고 생사에서 벗어나고 잠깐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 없는 세계를 보여줘야지 눈앞에 조금.... 그럴려면 아버지 어머니 복지는 안 해 두고 뭐 하려나왔어. 그 불교란 대단히 숭고하고 깊은 것이지. 그렇게 조그마한 그냥 그런 표면적인 것 하는 그런 복자가 아니여. 스님네 전문성을 길러. 그게 대단한 복지여. 앞으로 스님네 숫자가 적어갈수록 여법히 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지가 될 때가 와. 전문성 살려.

혼자서 정진하는 토굴 수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 상좌들이 토굴 간다면 나는 권하고 싶지 않아. 나도 잘못될 확률이 많았었어. 늘 부처님께 내가 절을 열심히 하고 오늘도 내가 잘못 가는 것은 아닐까. 늘 그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기에 용케 재수 좋게 잘못되지 않았지. 거기서 죽을려고 까지 했었으니까 죽을려고 바위에서 멀어지기까지 했었거든. 그만큼 잘못될 확률도 많았거니와 토굴생활은 권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래. 그건 본인 하기 따라 다른데 정말 공부를 하다가 공부 길을 알고 나서 토굴을 가야 되지. 공부 길을 모른 채로 토굴 가면 거의 잘못될 확률이 많아. 한 번 생각해봐. 오늘 이 웃 입었다가 여름 돼서 여름옷 갈아입었다고 사람이 달라져? 안 달라져. 장소란 웃과 같거든. 여기 있다가 토굴 갔다고 사람 달라지나면 그냥 그 사람 그대로란 말이여. 대중 안에 있으면서도 토굴생활 혼자와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은 토굴 가도 성공하고, 대중 속에서 토굴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토굴 가도 실패야.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서 익힐 만큼 충분히 익혀서 ‘아 이제 이 길이다.’ 속도를 내고 싶을 때 그때 토굴 가는 거여. 나는 2년 7개월간을 뉘지도 않고 장좌불와 하면서 밥을 안 먹고 생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혜국스님 되게 정진 잘한다고 소문이 나고 그랬는데, 그건 속은 거여. 앉아서 내 망상 피웠어. 그리고 번뇌망상이라는 것은 장소를 웃겼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여기 있는 번뇌망상은 거기 기도 그냥 그 사람이라. 나는 번뇌망상이 밖에 있는 거로 착각하고 내 아닌 걸로 생각해서, 왜 번뇌망상이 들어오나 번뇌망상을 원망하고 미워했지. 번뇌망상이란 내 잠재의식에 녹음해놓은 내 인생이라고 소중한 거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번뇌망상이 나여. 번뇌망상이라는 그 진흙을 가지고 부처님으로 조성해 나가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그 번뇌망상을 싫어해서 싸울게 아니라 그 번뇌망상을 아처럼 보고 사랑해 가지고 부처로 바꿔 나가는 게 수행인 거여. 진흙이 아니면 연꽃이 필 수가 없듯이 번뇌망상이 아니면 누가 공부해. 번뇌망상을 부처기운으로 바꿔나가는 거지. 나는 번뇌망상과 싸우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 그래서 3년 동안 토굴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지만 내가 손해 안 본 것은 마지막 두 달이여 두 달. 그 두 달 아주 좋은 인연이 있었어. 성철 큰 스님께 찾아가 오고 가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한 번의 참 절을 하려면 만 번의 헛 절을 해라. 한 번의 참화두를 하고 싶으면 천만 번의 헛 화두를 해라. 정말 경속에서 그 경이 내 경이 되려면 수천 톡, 만 톡을 해라. 무조건 읽어라. 이런 헛노력 없이 이 공부된다는 건 이건 어려워. 그런데 토굴 가면 헛노력을 하고 싶지가 않아. 진짜배기만 자꾸 찾으니까 번뇌망상만 더 찾는 거여. 헛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자칫 잘못했으면 거기서 죽을 뻔 했어.





###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도 계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여. 내 부처님이고. 계를 안 지키는 것은 부처를 놓치는 거여. 계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빛이 나게 하는 거잖아.

우리를 업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계잖아. 계란 것이 사회 법률로는 우리를 구속시키는 거지만, 불교의 계율은 업에 끌려가지 않고 이 대자유를 찾아서 나아가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점어서 보다 지금 오히려 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업에 안 끌리고 내 마음 부처님을 딱 잘 모셔서 중심 잡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잡히고 정이 생길 수가 없어. 업에 끌려가고 중심을 놓친 사람이 어떻게 정을 이뤄. 그리고 정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혜를 이뤄. 정과 혜는 저 전등불을 딱 켜 보면은 빛이 동시에 함께 나오듯이 정과 혜가 동시인 거여. 정과 혜가 동시에 계 지키는 것도 동시인 거여. 내 부처님 안 놓치겠다고 내 중심 잡겠다 하면 이미 그게 정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여. 계정혜는 하나님서 하나님도 놓치면 그것은 어그러지는 거여. 계는 아주 지켜야 돼. 우리 때만 해도 계가 없는 정은 인정을 안 했어. 그게 이제 다만 일제시대에 경허선사 같은 이런 분들이 세 사람만 나와서 가르쳐도 독립 운동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하나님. 생활은 어쨌거나 뒤를 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건데 그때 그러한 것이 잘못 전해져서 그리됐지. 그리고 우리는 나한테 쉬운 일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려운 일은 안 받아들이거든, 피하는 것은 쉬워도 지키는 것은 어려워. 도라는 게 뭐여?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설은 것은 익게 하라여. 어려운 길 가자는 것 아니여.

큰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내 전문성을 지키는 한 내 전문성 지키는 것은 그게 모든 걸 복합적으로 다 갖춰진 전문성이지 나는 내 길만 가고 다른 건 난 모른다는 전문성이 아니여. 오직 이 길을 잘 가자는 거지. 이 길 잘 가자는 건 뭐여. 상구보리 아니여. 상구보리는 또 뭐가 있어야 돼. 하회중생 없이는 상구보리는 필요 없는 거여. 한쪽뿐이니까 반드시 상구보리에는 하회중생이 있어야 돼. 고로 상구보리가 이론이 안 되려면 나는 항상 내가 하는 만큼 반드시 부처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런 포교는 늘 하면서 사는 거여. 단 포교 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늘 내 전문성 쪽으로 가면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부처님 은혜 갚는 길, 중생들에게 내 시은 갚는 길, 그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 고로 상구보리와 하회중생은 하나님 둘이 아니여. 그게 내 가치관이라. 지금 하는 화엄경법회도 그런 의미지. 나는 선방에서 15년 내지 20년 중노릇 했거들랑은 한 만큼 베풀기 시작 하라 해. 아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부딪혀보면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고 그럼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해봐라. 그래서 내가 상좌들에게 실질적으로 해보라 하지.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깥 인연에 끌려리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목빈대처하라. 그냥 상대와 싸우지 말고 그냥 자기 길 가라. 그게 악연이라면 뭐여?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여. 본인이 만들어놓은 거라면 그냥 자기 길 가야지. 죽어버릴 끼여 어쩔 끼여. 어떤 악연을 만나더라도 아 저 악연이 풀릴 때까지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정말 미워하지 말자. 내가 제일로 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미움 생기는 거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생기는 거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다 생각해야 해. 첫째 미워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저런 악연이 빨리 풀렸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그냥 기야 되지. 그걸 피할 필요도 없고 너무 풀려고 하지도 말고, 그게 목빈대처 아니여. 부처님께서 너무 풀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냥 받으면서 살아가라 하셨으니 그게

목빈대처겠지. 목빈대처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상대하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 부처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그렇지.

**수행을 하다 보면 신심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방황까지는 안 해도 신심이야 왜 안 멀어지겠나! 신심 멀어질 때라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는 게 좋아. 자기 혼자 힘으로 하기는 힘들어. 아주 선지식 찾이에서 혼이 나든지 아니면 아주 생명을 바치고 목탁을 두드리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지. 나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 그때마다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있고는 그 신심이 쉽게 안 일어나. 아! 사람이 당연히 신심이 멀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거니까 그냥 그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신심 멀어질 때는 아 정말 당연한 거다. 이때 어른 스님을 찾아가야겠다. 그럴 때 항상 찾아갈 스님을 정해놓고 서 찾아 뵈야 해.

**화두는 어느 때 타고 어떻게 화두를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두는 아무 때라도 타도되는데, 화두를 한번 타면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놔야 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이 몸뚱이에서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저런 허를 보이는 마음 다 가짜란 말이야. 그거에 속지 말아야 뭔단 말이여. 이건 전부 다 업으로 끌고 가는 내 감정이다. 그러면 참 나는 누구나. 그게 화두다. 화두를 받은 나는 이것만 나지. 그 외에는 전부 내가 아니라는 믿음이 딱 가야 돼. 그럴려면 최소한 화두 받을 사람은 부처님께 와서 딱 삼천 배를 하고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상처받았다는 마음 이런 데 속지 않겠다고, 삼천 배 끝나고 화두 딱 받으면 그것만 나지 그것 딱 잡고 있으면 내가 살아 있는 거고 그것 놓치면 업에 끌려가는 시간이라는 원을 세우면 그 화두가 훨씬 나아. 그리고 화두 하는 방법은 받

고 난 다음에 수시로 들어야지 한 번 들어서는 안 돼. 그리고 화두 잘하고 못하고 있는 거는 보면 알지 그거는 벌써 화두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다른 망상 번뇌는 거짓이 있지만, 화두는 속이질 못하기 때문에 보면 다 알아.

**두서없는 질문에도 정성껏 답변해주시며, 후학들을 위해 “인연법과 마음공부”라는 당신이 저술한 책자에 친필로 “임차개진,” 이란 글귀를 써 주시는 큰스님.**

답설야종거(踏雪野中去)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 어지러이 걷지 마라.

금일아행적(今日我行蹟) 오늘 나의 이 발자국은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지니

눈길 위의 이정표와 같이 공부길의 이정표가 되어 주실 큰스님께 먼 곳에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이곳 운문사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깨달음)의 세계”임을 잊지 않고, 매 순간 깨어 있는 수행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당신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



## 善因을 심는 마음으로

김남선 / 교사, 불교여성개발원감사



뚜벅이의 행복한 출근길. 바싹 마른 라일락 가지에 연두빛 봉오리가 터질 듯하고 산수유나무가 노랗게 밝다. 기후와 땅의 조건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새싹들이 돌아나고 있다. 큰 나무들은 여전히 나목(裸木)이지만 그 속에 잎과 녹음 그리고 열매가 보이는 듯하다. 변화의 기적을 보는 행복감이 온 몸 마디마다가 움직일 때마다 출렁인다. 모든 알아지는 대상들은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기쁨의 요소가 된다. 이런 풍광을 즐기며 1시간 남짓 걸어서 출근할 수 있어 행운이다.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눈다.

“차렷! 경례! 사랑합니다!” 이 인사에는 우리들끼리의 약속이 스며있다. ‘차렷’은 정신을 차리는 것,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경례’는 祭禮를 올리듯이 경건하게 하자는 것. 나 자신과 타인과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경배하자는 것. ‘사랑합니다’는 나 자신과 나를 있게 한 모든 존재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사를 마치고 수업을 시작한다. “여러분은 왜 공부하지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왜 좋은 대

학 가려고 하나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요.” “그 다음은요?”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 뭐하려고요?” “잘 살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요?” “묵묵…….”

오늘은 훈민정음 배우는 시간이니 한자로 된 이름을 한글로 풀이하면서 의미를 다시 새겨 보기로 한다. ‘이름값만 하고 살아도 잘 사는 것’이라고 각자 이름의 뜻을 알아오라 했다. 이름 글자 중 강조하고 싶은 내용으로 풀이한다.

“남선, 착하게 살아! 강수, 강물처럼 흘러! 다은, 은혜롭고 또 은혜롭게! 윤송, 소나무처럼 푸르게! 이슬, 이슬처럼 해맑게! 지현, 지혜롭고 현명하게!……”

덧붙여 자신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뜻을 더욱 분명히 해보세요. 마음이 감동하고 믿으면 믿는 대로 삶이 펼쳐진다고 하니 진심을 담아 이름의 뜻을 표현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과 나의 상태가 나를 살리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을 살리고 나를 있게 한 모든 존재를 살리는 일인가?’ 점검해보고 각자 바라는 삶의 원칙을 이러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 보도록 제시한다.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아이들의 고민을 조사하니 진학, 진로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목표와 꿈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아이들이 3분의 2가 넘는다. 대학 입시에 매몰되고 좋은 직장 얻기 위한 과정이 되어 버린 꽉꽉한 교육 현실이다. 아이들은 이 서글픈 현실을 ‘꿈도 목표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희망이 꽃처럼 피어날 나이에 낙엽처럼 자신을 던져버리는 절망스런 소식도 듣는다.

인식의 전환과 삶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여 돈 많이 벌어 잘 산다는 목표는 세속적 욕망이다. 그 욕심에서 나온 목표 대신에 서원을 갖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욕심은 결과를 올바로 알지 못하지만 서원은 그 결과도 유익하고 과정도 유익한 것이기에 설령 원하는 바가 온전히 성취되지 못해도 과정 그 자체가 좋으니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름값하며 살겠다는 것은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다 좋을 수 있으니 이름풀이는 이름값을 서원으로 기억하도록 돋고자 한 일이다.

무엇보다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려 심신을 평안하게 하고 지금 여기서 자신이 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잘살기의 비법임을, ‘정신 차려’ 사는 일이 최고로 잘 사는 일이며 값진 자신임을 잊지 않도록 일깨우고자 힘쓴다. 인생의 봄을 맞이한 아이들의 인생길에 징검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봄 날 새싹에 물을 주듯 아이들의 善心에 물을 주는 일이 되기를 바라며, 善果를 바라며 善因을 심는 마음으로.

저자 약력 : 현 교사, 불교여성개발원 감사  
마음자람메카 대표  
(<http://cafe.daum.net/jarammeca>)

저서 : <역사의 동불>  
<행복을 가꾸는 교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생활명상> 등 다수



## 치문, 그 설레임

선 주 / 사미니파

호거산 등성이에 쌓인 눈을 바라보며 아직 녹지 않은 겨울을 그대로 담고 운문사를 들어선 것이 어제 일인 것 같은데 벌써 봄철이 다 지나간다.

말로만 듣던 운문사는 나에게 광활한 개척지임과 동시에 잠시라도 방심했다가는 물 한 모금이라도 허락되지 않을 것만 같은 메마른 사막처럼 생각되었다.

온사스님파의 짧은 인사를 뒤로하고 보이는 낯선 건물들과 얼굴들은 나를 긴장 시켰지만, 입방과 동시에 대중스님들과 함께 했던 신중기도는 아직까지 가시지 않는 떨림과 설렘을 간직하기에 충분했다.

법당 안의 매서운 공기는 춘삼월을 무색하게 하며 궂기를 예워쳤고, 대중스님이 함께 내는 또 하나의 기도소리는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처음 방부인사를 드리던 날, 충충이 앉아 계신 어른스님들과 윗반스님들의 기상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내가, 지금은 무언가에 열중해 있는 서른두 명의 도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건 왜일까?

'치문' 이란 책을 처음 받던 날, 이제 정식 학인이 되어 오래전부터 익혀왔을 계율과 글들을 배우게 된다는 기대감은 나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수업과 습의, 소임과 울력을 오가는 고된 일정 속에서도 윗반 스님들의 따스한 배려와 도반들의 수고로움이 조금씩 맞물려 이 운문사에도 봄 소식을 물고 온다.

실수투성이의 하루하루, 어떤 일들로 채워질지 모르는 생활 속에서 옛 운문인의 발자취가 고개 숙인 나의 눈 속에서 되살아나고, 청풍료의 선명한 바람은 기와자락을 타고 저 하늘 위로 날아간다. 1분 1초도 첫되게 보내지 않으려는 부지런함과 대중을 위해 하심 하는 모든 스님들의 노력과 땀방울들이 이 운문을 이루어내는 힘이 아닐까?

이제 호거산 등성이 열은 녹음도 그 빛을 발하고, 도량을 가득 메운 따뜻한 햇살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운문사를 가득 둘러싼 산등성이 빽빽한 소나무들은 화엄성종님의 수호일까?

봄은 이미 걸망지고 저만치 가고 있는데 나의 목덜미 새로 단 깃은 여물어 갈 가을을 기다리며 메마른 사막에 오아시스를 파야겠다. ●



## 발원문

'삭발' 하는 것이 '습' 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사' 수하는 것이 '습' 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염불' 하는 것이 '습' 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무명초가 자라면  
'삭발'은 그저 칼날만 날아 없애는 일일 뿐이고  
마음속에 '수행자의 상' 만 가득하면  
'가사'는 그저 내 어깨를 짓누르는 껌데기에 불과하며  
염불하는 마음속에 부처님이 안계시다면  
염불은 다만 무의미한 '소리지음'에 불과하노니

발원합니다

나의 수행이 중노릇을 위한 중노릇이 되지 않기를  
매 순간 깨어 있는 수행이 되기를  
텅 비어 거스를 것 없는 마음속에 오직 부처님 법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치문 봄날 청풍료에서…

선 유 / 대교파



## 노스님은 신장님

정 행 / 사집과

TV에서 본 스님의 모습은 바탕 메고 하얀 고무신 신고 안개 끈 고요한 숲길을 떠나는 뒷모습이었다. 단아한 스님의 모습을 꿈꾸며 출가한 지 어언 3년이 지났다.

가장 인상적인 우리절의 첫인상은 세속의 어머니를 닮은 노스님과 단정하고 온화하며 엄숙한 석가 모니 불상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내 품 안에 꼭 들어올 만한 자그마한 관세음보살님 상이었다. 나는 키가 작아 약간 열등의식이 있는데 혹시나 절집에도 나같이 작은 스님이 없을까봐 은근히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노스님을 뵙자 안도의 숨이 나왔다.

행자생활 1년 동안, 절집생활이 낯설고 너무 힘들어 부처님의 가파가 절실하게 필요해진 나는 3개월 신장기도를 작정하고 저녁예불 끝나면 목욕재계하고 108배를 하며 신장님께 기도했다. “신장님, 이렇게 출가하여 가사 장삼 입고, 이렇게도 좋은 적멸보궁에 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부디 부처님과 노스님, 은사스님, 사숙님, 형님들 모습처럼 위의가 반듯하고 단정하며 부처님의 사명을 잊지 않는 진정한 스님이 되게 도와주세요, 신장님.” 하며 간절한 바람과 지국정성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덕에 나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느 화창한 5월의 초여름! 아직 계를 받지 않은 외출금지인 노란 옷의 행자에게 기회가 왔다. 통도사를 한 번도 구경 못 해 안달이 난 나에게 아침부터 노스님과 형님이 출타하는 모습이 보였다. ‘때는 이때다’ 하고 절 문 앞을 열 발자국 걸어갔다. 물론 다리 아프신 은사스님 몰래 말이다. ‘신 나게 통도사를 구경해보자’ 생각을 하며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오는구나!’ 생각하며 걸어가는데 그 차가 갑자기 내 옆에 멈춰 섰다. 고개를 들어 보니 “행자님, 어디 가노?” ‘에구구… 나는 이 차가 왜 안 지나가고 이 넓은 도로에 서나?’ 싶었더니 웬걸, 노스님과 형님의 차였다. 혼자 마음대로 구경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행자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날 천동·번개같은 목소리로 노스님의 호령과 나의 교육을 담당한 형님에게 한 시간짜리 과외를 받아야 했다. “노란 옷을 입은 행자님이 얼마나 눈에 잘 떨 것이며, 행자님은 1명이지만 비구니스님, 크게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것이니,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자두의 계절이 다가오자, 사숙님이 자두 한 봉지를 가져오시면서 직접 키운 것이라며 노스님께 공양했다. 자두 값이 금값인지라, 직접 따오신 사숙님의 자두는 그야말로 다이아몬드였다. 그런데 노스님이 살짝 불러 나에게 그 자두를 모두 주시며 “정행이는 자두 좋아하니 이거 다 먹어라.” 하셨다. 하지만, 몇 개 먹다 보니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맛도 시고 씨를 버리려 멀리 가기도 귀찮아서 대충 먹고 담 너머 코스모스밭에 버렸다. 그런데 정확하게 한 시간 후 노스님께서 처사님과 함께 담장 문을 여시며 “코스모스밭을 정리해서 솔밭으로 만들어야 하니 정리 좀 해 주세요.” 하지 않겠는가? 물론 당장 호출이 떨어져 비가 오지 않는데 벼락까지 맞아야 했다. 노스님의 벼락소리와 형님의 번개눈빛과 함께 “시주물을 내 품보다 더 아껴야 하거늘 그 파보를 어찌 받으려고 이렇게 버리느냐?” 하시며 다시 주워서 당신이 직접 셋어 드시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철딱서니 없고 멀렁대며 물건 아낄 줄 모르고 평계 대기 좋아하고 요령 잘 퍼우는 내 모습을 고쳐주기 위해 노스님과 형님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이제는 알 수 있다. 계를 받은 이후 노스님께서는 통도사의 산책길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통도사 도서관에서 모든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 들녘을 산책하며 다비장 솔밭 길을 지나갈 때 다정하고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 눈물이 펑 돈다.

“정행아, 저 다비장을 보아라.  
우리 육신은 넓은 옷과 같아서 때가 되면 그 옷을 벗을 줄 알아야 한다. 항상 그때를 준비해서  
마음단속을 잘해야 해!  
원래 마장이란 바람은 문틈으로 솔솔 들어오지?  
정행이 마음에 문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 단속 잘하거라.”



우리 노스님을 보고 통도사 원하노스님께서는, “내 제자 40명보다 저 비구니스님 1명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다 한다. 아직 나의 모습이 노스님과 형님처럼 여법하진 않다. 그러나 강원에서 대중스님과 함께 율력, 간경, 기도, 독송으로 수행하는 지금은 ‘정행스님’이라는 어엿한 스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정진 중이다. 그리고 그런 내 마음 속에 항상 작지만 당차고 매서운 우리 노스님이 자리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스님! 건강하세요. ●

## 발보리심(發菩提心)

여 향 / 사교과

산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린 바람의 숨결, 아직은 깜깜한 하늘을 밝히고 있는 초롱초롱한 눈 밝은 별들, 폐부 깊숙이 맑게 채워주는 상쾌한 공기…….

그랬다. 도시에서 온 나에게 있어 운문사의 첫날 새벽의 느낌이…….

가슴이 울릴 정도로 우렁찬 학인스님들의 새벽예불 모습이 너무나 환희로웠고, 이 넓은 가람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내가 강원에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발우 공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데없이 행복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 어린이 법회에서 주최한 수련회에 가면 꼭 발우 공양을 하게 했는데, 마지막엔 김치로 행궈 먹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에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스님들은 참 지혜로우시구나! 이렇게 해서 물도 절약하고 그릇을 깨끗이 닦듯이 내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으니…….'

그런 좋은 경험을 하고 난 뒤부터는 매스컴에서 잠깐씩 접하는 스님들의 발우 공양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거룩하게 보였다.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출가하게 된 지금.



나는 처음 발심하였던 때와 새중 때 앞으로의 수행 길에 대한 각오와 다짐, 그리고 학인으로서 살고 있는 현재가 한결같지 않음을 비로소 느끼게 된다. 익숙해진다는 거,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부가 익어진다는 것이기에 좋은 듯하나 이 6식에 속는 오온 무더기가 참인 줄 아는 범부에게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경계

의 대상이다. 잠깐씩 짧나는 시간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데 사용하기는커녕,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인 강원생활에 그새 익숙해져 버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 정신을 안으로 집중하여 행주좌와로 살피기보단, 자꾸 신경을 밖으로 돌려 님의 허물만을 보며 탓하고 있는 지금의 나는 부처님의 바른 법 깨치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그때의 초심자처럼 행복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이상이 고개를 쳐들고, 매사를 '나' 와 '너' 란 이분법적인



사고로 구분 지으며, 이기적인 탐욕만이 커지면서 점점 나를 잡아먹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남보다 '나'를 먼저 중시하는 사고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비심의 통로를 차단시킬 뿐만 아니라, 내 안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도 소멸시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나 다 원하는 삶-행복한 삶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법문에서처럼 또는, 나가르주나의 〈寶의 花環〉에서

모든 중생의 소원에 따라

흙과 물과 바람과 노래와 숲이 그런 것처럼

아무런 방해 없이 언제나 그들을 위한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고

나에게 또한 그들의 생명이 소중하기를,

그들의 죄는 내가 짊어지고

나의 공덕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리라.



라고 간절하게 발원하셨듯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에서 비롯

하여 모든 행복의 원천은 다른 중생들을 향해 열린 마음에

있다. 그러기에 항상 일체처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나 자신에게만 열려 있는 마음을 저 드넓고 광활한 대우주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려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가고자 오늘도 난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본다. ☺

우주가 지속되는 한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이 남아 있는 한

나 또한 여기에 남아

세상의 모든 불행을 몰아내리라.

- 산티데바의 「입행보리론」 中에서 -

## 避難處, 彼岸處

편집부

봄볕이 따사롭다. 유난히 한파가 심했던 지난겨울이 기억에 가물 할 만큼 산천은 푸르고 색색의 꽃이 만발한 산사의 봄은 평온하다.

꽃놀이 나온 자동차들이 줄을 잇는다. 흙도 밟기 어렵고 나무도 하늘도 색을 잊어버린 지 오래된 4계절 똑같은 모노톤의 도심을 떠나 봄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도심을 찾아 고향을 떠나지만, 여유가 생기면 혹은 여유를 만들고 싶을 때면 여지없이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리운 것은 어릴 적 추억뿐만이 아니리라.

인간은 많은 부분을 자연에서 치유 받으면서도 자연이 우리의 배경인 양 함부로 하고 등을 지며 발전과 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욕망 아래 자연과의 상생을 스스로 포기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 없는 자연에게 저지른 민행을 생각하니 올해도 여지없이 봄꽃을 피우고 봄볕을 내리며 절기의 악속을 지켜 준 자연에게 새삼 감사하다.

파스텔 톤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 같다. 문득 지난 일본 쓰나미 현장의 잿빛 바닷물이 해안가 마을을 덮치던 장면이 생각난다. 한 폭의 수채화와 한 폭의 지옥도가 오버랩 된다.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라 자부했던 어리석음과 그런 인간을 압도하는 자연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뉴스를 통해 본 쓰나미 현장의 참상보다 더 가슴 아프고 끔찍했던 것은 그 지옥 같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가족과 동료가 바로 눈앞에서 거센 물살 속으로 쓸려 들어가는 모습,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번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는 그 괴로움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이 역사에 기록될 대참사를 다루는 기사가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첫날, 피해 상황과 곳곳의 참상을 전하던 기사들은 이튿날, 너무나 침착하면서도 협동적으로 대처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 불안감과 참담함이 엄습했을 곳에서 사람들은 범법적 행위는커녕 도덕적 질서조차 여기지 않았다. 누구나 혼란스러웠겠지만 누구도 혼돈을 야기하지 않았다.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를 긴 줄을 서서 끝까지 차례를 지키고 회사에 출근을 하고 다시 주어진 하루에 맡은 바 의무를 다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놀라움을 넘어 감동으로 전해지며 인간 정신의 고양을 보여주었다. 인류문명은 자연 앞에 무기력하지만, 인간의 숭고한 정신력은 이 모두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일깨워준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재앙과도 같은 재난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지구에는 땅으로 바다로 유통되는 시절 인연이 도래했고, 이 같은 천재지변 속에서도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 우리는 동업 대중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재난들은 인간이 이루어놓은 문명의 이기(利己)로 인해 더욱 큰 인재로 변화되어 지금껏 인류가 감당해 본 적 없는 엄청난 경계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는 저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 시 대피요령과 피난처를 강구하면서 실상 확률적으로 희박할 생존가능성을 계산한다. 어떻게든 이 죽음의 위험을 피해 삶을 지속하는 것에 몰두하지만 정작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를 미래와 이미 지난 과거에 속아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또 한 번 놓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재난은 다만 삽시간에 가장 많은 생명이 죽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당장 대피할 피난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 제시하지만 정말로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일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피난처' 뿐일까? 불안감과 혼돈의 이 시대, 인류의 정신적 '피안처'는 어디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육체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도 살아가기 때문이다.

한 호흡에 삶과 죽음이 매 순간 위태로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삶은 때때로 즐겁지만 결국은 괴롭다. 근본적으로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음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가 진실로 현실적인 답을 구하는 길일 것이다. 때문에 인간은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와 '무아'의 실천을 통해 올바른 삶과 올바른 죽음을 위한 반복적 학습이 필요하다.

어떻게 사느냐는 곧 어떻게 죽느냐와 같은 문제다. '나' 와 '내 것'이라는 전도된 관념 속에 술한 이기(利己)와 욕망으로 물든 삶은 생에 대한 집착과 욕망으로 괴로운 죽음과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 잘 먹고 잘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매 순간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희망하며 정성스럽게 살아내야 한다. 삶과 죽음은 결국 한 끈의 양 끝과 같다.

● 일본 열도 희생자들의 명복과 더불어 산채로 지옥을 겪었을 피해 주민들의 삶에 희망을 두 손 모아 빌어본다.

## 운·문·소·식



▲신중기도



▲탁발



▲사리암잠배



▲고려 초조대장경 복간본 봉정식



▲처진 소나무 막걸리 주기

- 2월 22일~3월 7일 직지사에서 열린 제40회 행자교육원에 일진 주지스님께서 교수사, 운영위원으로 다녀오셨습니다.
- 3월 3일 봄철 개학공사 및 신입생 방부(연구생스님 5명, 올원생스님 1명, 사미나파 33명)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진광강사스님께서 휴식년 1년 동안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돌아와 학감소임을 맡게 되셨고, 서평스님은 유식, 원법스님은 기초불교, 지성스님은 일본어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 3월 3일~5일 대중스님들의 무장무애를 발원하는 신중기도가 3일간 대웅보전에서 있었고, 회향일에 산불예방 소금묻기를 하였습니다.
- 3월 7일 연례행사인 대교반 스님들의 탁발이 동곡, 경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있었습니다. 총 탁발금은 6,392,000원으로 인근지역 학교의 장학금, 군법당, 급식비 등의 지원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3월 9일 염불, 요가, 일어 등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3월 10일 치문반스님들의 사리암 참배가 있었습니다.
- 3월 11일 봄철 첫 自恋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16일 밭에 거름주기 대중율력이 있었습니다.
- 3월 19일 동화사에서 열린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 봉정식에 어론스님과 한문불전연구원스님, 올원생스님, 대교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3월 24일~4월 1일 제31회 구죽계 수계산립에 강주스님께서 증사로, 주지스님께서 갈마사와 교수사로 다녀오셨습니다.
- 3월 25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1일 포살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동화사에서 열린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에 주지스님과 한문불전연구원스님, 올원생스님, 대교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4월 4일 대중스님들이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 4월 6일 천연기념물 제180호 처진소나무에 막걸리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 4월 11일~14일 봉녕사에서 열린 제19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립에 사교반 스님 36명이 식차마나니계를 수계하였습니다.
- 4월 15일 제5회 청도 유등제에 대교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4월 22일~5월 20일 29일간 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도와주신 분

- 최해암 불자님 • 허 용 불자님 • 김미형 불자님 • 이기태 불자님 • 이종군 불자님
- 우충식 불자님 • 정도림 불자님 • 권혁창 불자님 • 김형민 불자님 • 오인완 불자님
- 최정길 불자님 • 정영미 불자님 • 노기용 불자님 • 황옥자 불자님 • 성문숙 불자님
- 노영삼 불자님 • 김정혜 불자님 • 배순애 불자님 • 이화진 불자님 • 최경아 불자님
- 실상월 불자님 • 황수진 불자님 • 정우식 불자님 • 안창규 불자님 • 허효선 불자님
- 정수산화 불자님 • 정안사 • 송천사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 등 불 |



김성은 / 천진불 oil on P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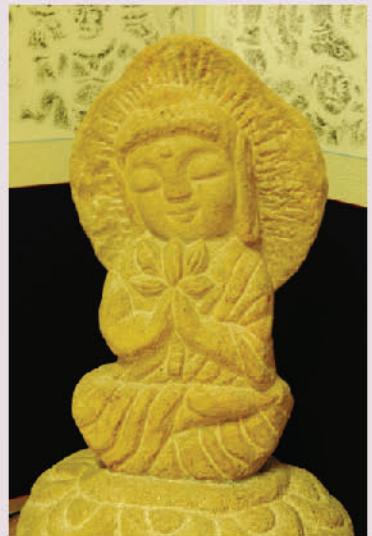
지금 그대로 당신은 경이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찾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 틱낫한 스님의 「포옹」 -



여여불(如如佛)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볼호·통권 제116호·2011년 4월 15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진광·편집·운문승가대학 문화부 / 편집장·장주 / 편집위원·덕해, 도우, 송강, 협우, 보경, 보원, 현재, 덕우, 법동, 선주 / 사진·편집부 / 삼화·승이  
편집디자인·미디어 (02)2285-3366